

코스피	코스닥
7475.94	837.43
(+184.03)	(+43.43)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768	1499.20
(-0.010)	(-2.20) (3일)



AI發 자산시장 혁신 투자 공식 달라졌다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자본시장 최고경영자 등 참여
미래 자산관리 'AI 활용' 강조
주식·부동산시장 우상향 전망

자주 쓰는 인공지능(AI)에 “AI시대에 자산시장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나?”고 물었다. AI는 “얼마를 투자할까”보다 “AI를 어떻게 활용할까”가 중요한 시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I는 스스로 AI가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 세금 최적화, 자산 리밸런싱, 위험관리, 은퇴설계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AI가 단순히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자산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플랫폼 기술에 가깝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L7·L8>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최고경영자(CEO), 시장 전문가들도 지난 9일 메트로경제가 연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한목소리로 “앞으로는 AI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뿐 아니라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시에 투자자 역시 AI를 분석 도구와 의사결정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좋은 자산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이제는 노후 준비의 핵심 과제가 됐다”며 “AI는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AI 알고리즘은 스스로 학습하며 최적의 대안을 찾지만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그 판단 과정

을 사람이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자산관리 과정이 ‘블랙박스’가 되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AI가 유사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비슷한 투자 판단을 내릴 경우 특정 자산으로 시장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투자자 보호를 넘어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에이전틱 AI’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는 AI가 매일 뉴스를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투자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문 직전까지 준비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투자자는 최종 승인과 판단을 담당하고 AI가 실행을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중심의 자산관리와 AI를 활용한 자기주도(DIY) 자산관리가 함께 성장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는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도 높일 것으로 평가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공시와 뉴스, 경제지표뿐 아니라 이미지와 음성 등 다양한 비정형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 처리 속도와 분석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실제로 챗GPT 활용 이후 호가스프레드가 축소되고 가격발견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AI 확산이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면에 계속>

/허정윤·신하은 기자·김아영 수습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고유가·고환율 지속… 농수산물 가격 급등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비료값과 어선 유류비가 오르며 수입산 고등어 1손(2마리) 평균 가격이 1만970원으로 평년 대비 22.3% 상승하고, 감자가 10.5% 상승하는 등 농수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중인 고등어.

/뉴시스

원·달러 환율 진정세… 1400원대 안착 기대

SK하닉, 美 상장… 대규모 달러조달
한은 금리전망도 원화값 상승 지지

이달 초 달러당 1555.8원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1.9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종가와 비교해 4.7원 내린 수준이며, 지난 2일 기록했던 1555.8원과 비교해선 53.9원(3.46%) 하락(원화가치 상승)했다. <관련기사 3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15일 달러당 1500원대에 진입한 이후 36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3월 이후 최장기록이다. 지난 8일에는 환율이 1498.5원까지 내려 달러당 1500원대 기록은 깨졌지만, 올해 주간 종가 평균은 1487.1원에 육박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의 환율 평균은 1305.1원으로, 올해 원화값은 달러와 비교해 ‘초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주춤

것은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원화값 하락의 주 요인이 됐던 달러의 수급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 미국주식에 타증서(ADR) 발행을 통한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약 265억달러를 조달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됐던 한·미 통화스와프(약정환율에 따른 통화 교환)로 공급됐던 달러는 198억7200만달러다. 양국 간의 통화스와프보다 큰 규모의 265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외환시장에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은 원화값을 빠르게 끌어 올렸다.

지난 주 코스피의 가파른 하락 이후 찾아든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도 원화값에 긍정적이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8~9일 양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조1000억원을 순매수했다.

◆ 한은 ‘금리 인상’ 관건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은의 금리 전망도 원화값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를 25bp(1bp=0.01%p) 인상한 2.75%로 높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만장일치 결정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다만 신현송 한은 총재가 지난 5월부터 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만큼, 시장의 이목은 향후 금리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금통위원 가운데 0.5%p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등장하는 등 긴축 경로가 제시된다면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값 상승)할 수 있어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는 1.25%p 수준으로, 기준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통상 환율은 하락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해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미 기준금리차가 축소된다면 원화에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진정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원화 환전 수요가 확대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으로 하향 안정화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美 공습 재개

걸프지역 군사충돌 우려 확산

페르시아만 일대에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선박 여러 척이 지정된 항로를 벗어났다는 이유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재차 틀어막았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대 이란 공습 재개로 응수했다. 그 직후 이란은 걸프 국내 미군기지 등을 상대로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2일(현지

시간)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해협 통과를 시도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어떤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공표했다. 항로변경 지시를 무시한 선박 1척에 대해서는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했다.

미군은 상선 피격 및 이란의 해협 재봉쇄 직후 대 이란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또 양국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3번째 이란 공습으

로 기록됐다. 미군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키프로스 국적의 상선 한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선원 1명이 실종됐다.

미군은 미 동부시간으로 11일 오후 7시경 공습을 개시했다. 케슈섬 등 이란 남부 곳곳에서 폭발음·화염 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도 주변국 공격을 다시 감행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중동 내 미군 목표물을 겨냥한 일련의 공격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 요르단 등지에서 방공망 가동이 포착됐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2026 백세플러스포럼 시즌2”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은퇴준비를 비롯해, 연금자산 관리, 부동산시장 전망, 디지털자산 투자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규준 기자 ch9720@

메트로 한줄뉴스

- ▲ 15일부터 **李 부처** 업무보고…“생중계 익숙”·“송곳질문 긴장”
- ▲ 해군 “동해 경비임무 함정서 승조원 1명 실종…수색작전 진행”



- ▲ 김용범, 잠재성장률 3% 언급하며 “**韓경제** 장기 추세 달라질 가능성” /사진 뉴시스
-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토론회에 “세금 부담 논의 집중 우려”

- ▲ 정청래, 김민석 겨냥 “최악의 자기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남의 당 돕는 구태”
- ▲ 개혁신당, 경찰 부실 수사 여론조사 “추가 수사는 ‘검사’ 65.5%·‘경찰’ 26.5%”

K-반도체, HBM 투자 경쟁… 110조 자체재원·40조 상장조달

〈삼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47조 현금성 자산 보유
내부재원 중심 투자기조 이어가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
최태원 회장 “증설투자 지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증설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 방식에서 다른 길을 택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으로 40조원을 확보해 국내 생산시설에 투입하고 삼성전자는 자체 현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 경쟁이 기술력을 넘어 투자 자원 확보 경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나스닥에 상장해 265억달러(약 40조 원)를 조달했다. 회사가 공시한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르면 조달 자금은 전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P&T) 건설,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확보 등 시설 투자에 투입된다.

추가 조달 기반도 마련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예탁증서 서류(F-6)를 통해 이번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로 출국하고 있다.

물량의 10배인 17억8000만주 규모의 ADR 전환 한도를 사전 등록했다. 향후 증설 단계마다 추가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상장 직후 “반도체가 예전 같은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확대 능력을 능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메모리 수요가 이어지는 한 증설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상시 조달 창구는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내부 자원 중심 기조

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ADR 상장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외부 자원을 조달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147조 3800억원으로 SK하이닉스(54조원)를 크게 웃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글로벌주식예탁증서(GDR)를 상장해 해외 기관투자자의 거래 통로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 미국 상장 없이도 자금과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난 10일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나스닥 ADR 거래 개시를 알리고 있다. /SK하이닉스

셈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사상 최대인 110조원 규모의 시설·연구개발(R&D) 투자를 자체 재원으로 집행한다. 지난달 말에는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2030조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도 발표했다. 메모리 업황이 부진해도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이 이익을 방어하는 사업 구조를 갖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양사가 자원 확보에 나선 배경에는 대규모 투자 경쟁이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 상장 하루 전인 지난 9일

2035년까지 미국 내 공장 기술 투자를 2500억달러(약 37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하워드 러트너 미국 상무장관은 같은 날 마이크로 뉴욕 공장 착공식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생산시설을 지어야 한다”며 양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사로서는 국내 증설 재원에 더해 미국 투자 요구까지 감안해야 필요한 투자 규모가 한층 커진 상황이다.

투자 부담이 커질수록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의 차이도 뚜렷해진다. 이 때문에 양사의 상반된 자금 조달 전략은 HBM 경쟁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메리츠증권 등 증권가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최소 2027년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설 재원을 먼저 확보해 생산능력(캐파)을 늘린 기업이 주도권을 쥌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단위가 수십조원대로 커지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기술 못지않은 경쟁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5대 금융지주, 상반기 포용금융 11.3조 공급… 목표치 초과달성

금융위 포용금융 추진현황 점검
지속가능한 실천방안 마련 방침

올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공급액이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포용금융 공급액은 2조3000억원의 자체 채무조정 및 1조5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이 포함된 금액으로, 당초 반기별 공급액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각 금융지주는 포용금융을 한시적 지원이 아닌 상시적 책무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진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제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포용금융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공급 실적을 점



금융위원회 내부 풍경.

/뉴시스

검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과 서민금융과장, 각 금융지주 별 포용금융 담당 임원이 향후 포용금융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포용금융 공급 총액은 11조2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계에는 새희망홀씨, 중금리대출, 미소금융 등 서민·취약계층 대출 공급액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공급액, 자체 채무조정 및 소각 등 연체채권 관리가 포함됐다.

각 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각 금융지주는 올해 1월 포용금융 실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포용금융 확대 방안도 공개했다.

KB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의 포용금융 공급 목표였던 17조원의 포용금융 공급액에 더해 3조5000억원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과 5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추가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포용금융 공급 목표치다.

신한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의 포용금융 공급 목표를 15조원으로 설정했다. 연내 공급 목표액은 4조5000억원으

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평균금리 이하로 인하하는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소각을 통해 목표치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공급액은 2조1000억원으로, 하반기에는 중·저신용자 전용으로 연 5.5% 금리 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을 적극 취급해 추가적인 포용금융 공급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의 포용금융 공급 목표인 7조4000억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조5000억원을 올해 추진 목표로 설정해 조기 공급한다. 올 상반기 개인 신용대출의 금리상한제와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소각으로 목표치 조기 달성을 앞

둔 만큼, 포용금융의 지속 공급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농협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 15조 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에 나선다. 농협금융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제한 상품을 출시하고, 지방이전 청년 전용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및 농업인 대출을 출시하는 등 맞춤형 상품 공급에도 힘쓴다. 올 상반기 누적 공급액은 2조1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포용금융 확대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 도입 ▲전담 최고책임자 지정 ▲건전성 규제 합리화 ▲신용평가체계 개선 등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체계를 구축한다. 각 금융지주는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상시적 책무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韓, 미래 스마트 제조 분야 국제표준 이끈다

국표원, SC65F 간사국 지위 확보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M.AX) 시대를 맞아, 미래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이끌어갈 전담 조직의 운영을 우리나라가 맡게 됐다.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첨단 제조기술의 표준화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업자동화위원회(IEC TC65)’ 산하에 신설되는 ‘스마트제조 표준화위원회(SC65F, 이하 위원회)’의 간사국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위원회는 AI와 디지털 트윈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제조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본격화된 ‘제조 AX

(M.AX)’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현실의 생산 공정을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공장 ▲제조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연결하는 스마트제조 △AI를 활용해 제조공정을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자율제조 등 미래 제조 핵심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간사국 확보는 한국이 위원회 신설 논의 초기단계부터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표준 선도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설립 작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얻어낸 결실이다. 간사국은 별도의 임기 제한 없이 위원회의 운영과 국제표준 개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안정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막강한 지위

를 갖는다.

앞으로 국표원은 스마트제조 표준화위원회의 사무국을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조 분야 데이터, 제조 AI 운영·관리 기술 등 국내 핵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발 빠르게 발전시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간사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을 넘어 미래 제조산업의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기업이 보유한 M.AX 기술과 혁신 성과가 국제표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AI, 금융 핵심변수 부상… 성장방향 주목해야”

» 1면 ‘AI發 자산시장…’서 계속

주제 강연자들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모두 우상향을 전망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는 특정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변수”라며 “미국의 AI 투자 확대와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맞물리는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 장기적인 성장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는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처럼 아파트 쇼티지”라며 “아파트 공급 부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고점을 넘어섰고, 성

동구와 송파구는 전고점 대비 30% 이상 높은 수준까지 올라 다른 지역보다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해결 방법은 결국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자산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온체인 금융(On-chain Finance)’을 제시했다. 온체인 금융은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을 토큰 형태로 저장하고 거래하는 금융 시스템이다. 그는 “인류의 금융은 현물 거래에서 화폐, 장부, 전자금융으로 발전해왔고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기록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주식과 채권, 국채, 금, 달러 같은 현실의 자산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발행·거래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

美서 조달한 40조 국내 공급... 통화스와프급 환율 안정 효과

나스닥 ADR 공모로 265억달러 확보
용인·청주 반도체 투자재원 활용
2020년 통화스와프 규모 웃돌아
이달 중하순부터 분할환전 가능성
원·달러 수급 불균형 완화 힘 실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SK하이닉스가 한국 외환시장에 '통화스와프'와 맞먹는 대규모 달러 자금을 국내에 공급할 전망이다.

최근까지 국내 외환시장의 원·달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며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의 요인이 됐던 만큼, 이번 달러 자금 공급은 장기간 이어진 원화값 약세를 진정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발행 및 공모를 통해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ADR은 외국 기업이 자사 주식을 담보로 미국 증시에 우회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모된 자



최태원 SK 회장(가운데)과 박노정 SK하이닉스 CEO 등 SK그룹 핵심 경영진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상장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금은 오는 14일 SK하이닉스에 납입될 예정으로, SK하이닉스는 해당 자금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등 국내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달러 자금을 국내 투자에 활용할 예정을 밝히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장기간 지속됐던 고환율

국면의 진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5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외환시장에 유입되면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됐던 원·달러 수급 불균형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규모 달러 유입이 '통화스와프' 수준의 과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한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유통하는 두 국가가 환율을 약정하고 사전 합의한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간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바 있는데, 당시 통화스와프를 통해 공급된 달러는 약 198억7200만 달러 규모다.

이달 초 달러당 1555.8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달러 공급 기대를 선반영하며 1500원 수준까지 내린 가운데,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오는 8~9월까지 순차적인 달러 매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중하순부터 환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설투자에 필요한 원화를 마련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달러를 매도하겠지만, 하루 약 10억달러씩 분할 환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며 "실제 달러 공급 효과는 8~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환전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 측은 "ADR자금은 증권신고서에 공시한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며, 원화로 일부 환전해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환전 규모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ADR 데뷔 첫날 13% 급등... 국내 본주 단기약세 가능성

(미국주식예탁증서)

본주보다 약 35만원 높게 거래
당분간 가격 차 이어질 가능성
美 투자 접근성 프리미엄 분석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가 데뷔 첫날 공모가보다 13% 뛰며 국내 본주와 증시(수급)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가격 격차가 유지될 것이란 데 무게를 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에서 SK하이닉스 ADR은 168.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149달러)보다 13.08% 오른

가격이다. ADR은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주식 교환권'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ADR 10주가 국내 보통주 1주와 같은 가치다.

이를 국내 주가와 비교하면 미국에서 거래된 SK하이닉스 가격은 보통주 1주당 약 252만8000원 수준이다. 전날 국내 증시에서 마감한 SK하이닉스 주가(218만원)보다 약 35만원, 비율로는 약 16% 높은 셈이다.

단기적으로 한국본주 주가가 상대적으로 눌리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슷한 사례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TSMC 역시 미국 ADR과 대만 본주 사이에 가격 차이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2010~2019년 평균 3.2%였던 ADR 프리미엄은 AI 열풍이 시작된 이후 크게 확대돼 올해는 평균 1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미국 ADR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향후 미국 ADR과 한국 본주의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재평가될 것

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메모리 반도체 주식의 희소 가치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내 주가가 미국 가격만큼 곧바로 오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투자은행 UBS 그룹은 지난 7일 고객들에게 발송한 노트에서 "(상장) 첫날부터 미국예탁주식(ADS)를 매수하고 국내 라인(본주)을 공매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UBS는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의 국내 상장장에서 미국 2차 ADR 상장으로 향

후 전환할 때 허용되는 외국인 보유 한도 여유분에 주목할 것"이라며 "이런 한도 탄력성이 없다면 접근성 부족으로 미국 라인이 뚜렷하고 지속적인 프리미엄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ADR이 국내 주식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과 국내 본주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 붙는 별도의 프리미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앞으로 가격 차이가 국내 주가 상승으로 좁혀질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만의 프리미엄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시작

경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산업·공간·사람의 연결, 글로벌 혁신 거점 완성

- 비수도권 최대 첨단산업 생태계
- 전국 최대의 농업·임업 생산지
-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글로벌 브랜드 가치
- 국토 중심의 우수한 교통망

국토 공간 대전환 시대, 균형발전의 중심
경상북도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경상북도

www.gb.go.kr

기체 제작부터 UAM·우주수송까지… ‘항공우주사업’ 속도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2025 합동군사우주력 발전 심포지엄’에서 전시한 공중발사체 모형과 3톤엔진, 연소기.



대한항공이 지난해 4월 3t급 메탄 액체로켓엔진 연소기의 연소시험에 성공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올해 항공우주사업 매출 1조 목표… 실적 개선 본격화
보잉 항공기 핵심 구조물 제작, 에어버스 카고도어 납품
수지충전공정, 열가소성 복합재 활용 부품 경쟁력 강화
AI 기반 조립자동화 기술개발로 ‘스마트 팩토리’ 추진

UAM 인프라 선점 나서… 실증사업 등서 기술력 입증
3톤급 메탄 액체로켓엔진 등 우주발사체 구성품 개발
2035년 KPS 위성 1호기 구조계 개발 사업 완수 목표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F)’ 대한항공 부스 전경.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 조감도.

/대한항공

20 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체제에서 대한항공이 여객, 화물 사업의 본격적인 상승기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로 주목한 항공우주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연말 아시아나항공과의 본격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 개발 등 항공 우주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종합 기업으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진그룹 창립 80주년 행사에서 “5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우주 시대에 적극 참여해 유·무인 탐사, 위성 물류, 우주 운송 사업 등 우주 물류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미래 사업으로 우주항공 사업을 지목했다.

◆ 운항 넘어 부품 제작하는 유일 항공사

12월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항공 우주 사업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연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2021년 374억원 ▲2022년 452억원 ▲2023년 523억원 ▲2024년 802억원 ▲2025년 91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은 항공 우주 부문 매출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항공 우주 부문 매출은 ▲2022년 4910억원 ▲2023년 5407억원, 지난해 59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기술 경쟁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항공기 제작업체와의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 보잉과 보잉 787 드림라이너 구조물 국제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입했다. 이외에도 보잉 747 날개 구조물 제작부터 717, 737, 767, 777, 747-8 등 다양한 기종의 민간 항공기 부품을 제작해왔다. 대한항공은 현재 날개 끝 장치인 ‘레이키드 윙 팁’, 날개 아래 유선형 보호 덮개인 ‘플랩 서포트 페어링’, 항공기 꼬리 부분에 장착하는 후방동체 ‘애프터 보디’ 등 보잉 항공기의 핵심 구조물 제작을 책임지고 있다.

에어버스와의 협력도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10년 에어버스 A320 시리즈 성능개선사업 국제입찰에서 일본, 프랑스, 독일 기업을 제치고 샤크렛 제작사로 최종 선정됐다. 샤크렛은 레이키드 윙 팁의 일종으로, 항공기 날개 끝에 장착돼 공기저항을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구조물을 말한다. 2012년 첫 납품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4800대에 달하는 샤크렛을 공급해왔다. 또한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A350 기종의 전·후방 카고도어 및 벌크도어도 납품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 중 안정성과 직결되는 고정밀 복합재 구조물인 카고도어를 전량 설계·개발하며 대한항공만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최근엔 에어버스가 주관하는 국제 연구개발 프로젝트 ‘윙 오브 투모로우’에 아시아 유일 참여 기업으로 선정돼 새로운 공법으로 제작한 윙 팁 시제품을 납품하는 등 기체 구조물 연구 개발 역량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 ‘탄소중립’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개발 위한 부품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은 탄소중립 시대 선도를 목표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개발을 위한 부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저감, 저비용, 고속생산 등을 위해 대형 구조물 복합재 성형기술, 열가소성 복합재 적용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조립자동화 시스템 개발 역량에 집중하고 있는 것. 현재 18m급 주익(비행기에서 좌우로 뻗은 날개 중 가장 큰 날개) 스킨에 수지충전공정(RTM·Resin Transfer Molding)을 활용해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인 대량 생산 체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이 열가소성 복합재를 활용해 개발 중인 화물용 도어도 눈여겨볼 만하다. 열가소성 소재는 열을 가했을 때 녹고 온도를 충분히 낮추면 고체 상태로 되돌아가는 소재를 말한다. 한번 열을 가해 성형하면 재가공이 되지 않는 열경화성 소재와 비교해 친환경적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오토클레이브(고온·고압 성형) 공정을 사용하지 않아 대량 생산에도 유리한 만큼,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향후 자율형 미래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로 발전하기 위해 AI 기반 조립자동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대



형 복합재 동체 구조물 조립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로봇 자동화 셀, 디지털 트윈, AI 알고리즘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정밀도를 높이고, 품질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국내 UAM 운항 사업 생태계 구축 나서

대한항공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대비해 사업 영역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UAM이 미래 도시 핵심 인프라로 주목 받으면서 그간 쌓아온 기술력을 토대로 인프라 선점에 나선 것. 대한항공은 2023년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 KT와 협력해 도심항공교통의 성공적 실현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 또 대한항공은 다양한 R&D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UAM 운항 시스템과 교통 관리 시스템 개발에 앞장서며 노하우를 쌓아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K-UAM 그랜드챌린지(Grand Challenge)’ 2단계를 수행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2023년 10월에는 미국 첨단 항공 모빌리티 기업 수퍼널(Supernal)과 UAM 운항사업 생태계 구축과 상용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개발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2월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드론쇼 코리아에서 UAM 통합관제 솔루션 ‘ACROSS’를 공개해 UAM 상용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7월에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F)’에 참가해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였다. 결합 발전 시 AI를 활용해 적합한 정비 활동 계획을 제안하는 챗봇, 장기 체공이 가능해 육·해상 환경 조사 및 정찰·물품 배송 등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드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인스펙션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 우주발사체 사업 추진 필두로 ‘우주수송’ 영역 확장… ‘한국형GPS’ 위성 개발

대한항공은 최근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우주수송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12년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 조립 및 발사운용과 75톤급 엔진 및 7톤급 엔진 개발 과정에 참여하며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대한항공은 현재 공중발사체, 지상발사체, 궤도 수송선, 달 착륙선 등 다양한 우주수송 플랫폼에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주발사체의 핵심 구성품인 ‘3톤급 메탄 액체로켓엔진’, ‘공통격벽 추진제 탱크’, ‘단단 연결 엄빌리컬’, ‘통합 에비오닉스’ 등 핵심 구성품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4월엔 금속 3D 프린팅 방식을 활용해 제작한 3톤급 메탄 액체로켓엔진 연소기의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마찰교반용접(FSW) 방식으로 제작된 공통격벽 추진제 탱크 시험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을 기반으로 민간·공공·연구기관과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며 우주수송 사업으로 확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2040년까지 우주 물류수송 산업화 등 지속 가능한 우주수송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공위성 개발 사업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992년 무궁화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과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 개발에 참여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23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 1호기 구조계 개발사업 협력을 시작했다. KPS는 지구 궤도를 도는 8기의 위성 무리로, 한반도 인근에 특화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GPS’를 말한다. KPS가 구축되면 수십 미터(m)에 달하는 GPS 오차를 센티미터(cm) 단위까지 줄일 수 있다. 대한항공은 KPS 위성 1호기 구조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20년간 쌓아온 위성 구조계 개발기술과 전문인력,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우주용 복합재 제작 조립시설 등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한항공은 2035년까지 계획된 KPS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할 첨단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미래 항공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기업의 존재 이유인 ‘Connecting for a better world(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결)’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문화강국의 내일은 지금 박물관에서 자라는 중

과거의 아름다움부터
기대되는 미래까지
그려보고 상상하는 곳

박물관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는
첫 번째 순간이 되기에

KB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소중한 시작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곳곳의 박물관 무료 관람을 지원합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박물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신청 경로 KB스타뱅킹 ▶ 국민지갑 ▶ 일상 속 편의 ▶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전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무료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바로 가기



* KB금융그룹

국회 원 구성 협상 이번주 최대 고비… 17일 전 타결 주목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입장차 여전
민주 “국힘 몫 상임위도 조속히 구성”
국힘 내부서 입법 추진 견제 목소리도

여야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당부한 오는 17일까지 원 구성 완료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 구성이 되지 못한 ‘빈쪽 국회’가 지속될 경우 민주당은 일각의 입법 독주 비판에도 쟁점 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주가 여야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6월 말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통과와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 따라 배정된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회도 중요성이 큰 만큼, 조속히 원 구성을 완료해 민생·개혁 입법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다수당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국회의장을 맡고, 원내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뤄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민주당이 연거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결국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등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를 선임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모두 불참하며 ‘빈쪽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 입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지연되자 원내지도

부가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다만, 조의장은 야당과 추가 협상을 요청했다. 이후 조 의장은 지난 8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양당이 신속하게 합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여야는 이번주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협상에 다시 나선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7곳인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배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경색된 국면이 풀리긴 쉽지 않을 거라는 비판론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수적 열세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원 구성에 참여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등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시도를 강하게 경고하는 등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실리론’도 관측된다. 이미

국회 법사위에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심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하반기 원 구성 전략과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안 추진 등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엔 권영세·김기현·나경·원·안철수 의원 등과 회의를 한다.

일각에선 상임위 교차 상태가 계속될 경우 입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20년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법사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간 바 있다. 한정사상 첫 사례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에 “민주당은 민주당 몫으로 배분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 심사를 계속 할 것”이라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것은 민주당도 부담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李 내치 복귀… 부동산 대책·2기 내각 속도

15일부터 2차 정부부처 업무보고
23일 부동산 공개 토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3박5일 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몽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며 내치에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후속 조치를 점검하면서 오는 15~21일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23일엔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부동산 공개 토론회 등을 주재할 예정이다. 또 한 성숙 국무총리가 임명된 만큼 2기 내각 출범을 위해 일부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11일) 밤 닷새 간의 나토·몽골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선 유럽 국가와의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전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몽골에선 회토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등 핵심공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치에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는 2차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할 예정이다. 지난해 생중계 보고로 화제를 모았던

일명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 합성어)’가 시즌 2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번 2차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 대상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개 부, 6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 등 총 140개 공공기관이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전 과정이 생중계에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엔 200명 규모의 국민참관단도 함께한다. 주관자인 국민이 직접 보고를 받는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부동산 종합대책도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토론회에선 보유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전대 를 갈등 격화… 당권 구도 윤곽

선출 방식·청년 최고위원 논란

민주당이 이번주 당 대표 후보 선출 방식,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등 쟁점 사항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드러나며 내용이 깊어지는 가운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도 출사표를 속속 던져 선거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출 방식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보고한 ‘선호투표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회의 시작 40분 전에 취소되며 ‘전대 룰’과 관련한

갈등 양상을 드러냈다.

일각에서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정청대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명심(이재명의 마음)을 강조하는 김 전 총리·송 의원과 정 전 대표가 대립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단 한번의 투표로 당 대표가 결정되는 선호투표가 정 전 대표 측에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시에 후보를 추려 2차 투표로 최종 당 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전준위가 도입하기로 한 청년최고위원제도 도입 전부터 논란의 목소리가 나온

다. 민주당이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전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제도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동일한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한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최고위원 구성에 따라 계파의 유불리가 갈리는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후보 등록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치의 뜻을 품은 청년들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계파가 미치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일은 오는 16~17일이다.

/박태홍 기자

‘반짝 반등’ 국민의힘, 지지율 다시 내리막

전문가 진단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지지율 24% 지방선거 직후 29%서 연속 하락
징계 정치·계파 갈등 가장 큰 원인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깜짝 반등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모양새였지만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수 진영에서 비교적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선거에서 이기며 기대를 모았으나, 장동혁 지도부의 ‘뺄셈 정치’가 다시 시작되며 지지율이 제자리리를 찾아가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10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응답률은 9.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4%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주차 29%에서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민주당(42%)과의 격차는 18%포인트까지 다시 벌어졌다. 선거 직후 리얼미터 조사에서 44.3%를 기록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38.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셈이다.

12일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은 반등과 하락의 원인을 각각 ‘반사이익’과 ‘집안싸움’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했다. 선거 국면의 반사이익과 오세훈·한동훈이라는 새 구심점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을 끌어올렸지만,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를 고리로 당내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모처럼 모였던 지지가 다시 흩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훈 정치평론가는 “6·3 지방선거 국면부터 반사적 이익을 보기 시작했다”며 “정청대 민주당 대표의 말실수와 강성 드

태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논란 등을 꼽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지지율이 반등했던 것은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기대만큼 못 했고 내부 분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사이보우’의 일시적 재등장으로 반등을 설명하는 분석도 나왔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직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한동훈과 오세훈이었고, 이들이 주목받자 ‘국민의힘도 바뀔 수 있다’고 본 사이보우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에 나섰다”며 “특히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크게 올랐지만,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20%대에 머물렀던 것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무선 ARS 방식의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4.3%까지 올랐던 반면, 전화면접 방식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최고치가 29%에 그쳐 조사 방식 간 격차가 뚜렷했다.

전문가들은 하락세의 결정적 원인으로 장 대표가 주도하는 ‘징계 정치’와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지목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시간이 지나며 오세훈·한동훈 효과가 약화되고, 장동혁의 징계 정치 논란이 가열됐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중훈 평론가는 “선거 뒤에도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고 장 대표는 오히려 더 극우로 가고 있다”며 “한동훈·오세훈이 살아 돌아오자, 중도 보수가 그쪽을 지지하는데, 장 대표가 이들을 배척하고 친한계·비윤계 정계를 밀어붙이니 보수 진영 내 내분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퇴직연금 DB, DC, IRP 합산 적립금

**금융권 전체 1위** (은행, 증권, 보험)

*2026년 1분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1등의 권리 한 번 받아보실래요?”

우리 국민의 해나된 선택
퇴직연금전문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 | **1577-4114**

※-(DC,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형IRP의 수수료는 후취 연 0% ~ 0.45% 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운용/자산관리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6-01741호 (2026.04.15 ~ 2027.04.14). 준법감사인 사전심사필 제 2026-11660-1호 (2026.04.15 ~ 2027.04.14)

자산관리 전문은행  **신한은행**

세계적 작가 작품·AI 서비스 ‘눈길’… 하이엔드 가치 극대화

부동산 현장 르포

현대건설 ‘디에이치 방배’

큐브 아틀리에에 들어서면 밖으로는 박선기 작가의 큐브 타워가 보이고, 안에서는 천장을 올려다보면 반짝이는 아르킬 비즈가 공중에 떠있는 듯 보인다. 신라호텔 로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상들리에와 같은 시리즈다. 33층 스카이 라운지인 클라우드33에도 세계적인 작가 알렉산드르 벤자맹 나베가 현장에서 직접 그린 벽화가 펼쳐지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가구는 5성급 호텔에서 드물게 보이는 이탈리아 초고가 브랜드인 비앤비(B&B)와 미노티가 전면에 배치됐다.

지난 10일 찾은 ‘디에이치 방배(THH H 방배)’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앞두고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사전점검 역시 단순히 시설 하자 체크를 넘어 앞으로 누리게 될 공간과 서비스, 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해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의미의 쇼케이스(SHOWCASE)로 진행했다.

디에이치 방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 방배5구역에 재건축에 들어섰다. 지상 33층, 29개 동, 총 3064세대 규모의 대



디에이치 방배 아트밸리.

주거플랫폼 ‘H 컬처클럽’ 첫 적용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제공
“반포·한남 등 디에이치 문화 확산”

단지다. 방배동 정비 사업지 가운데 가장 고층이다.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로는 7번째 단지지만 대단지를 기준으로 하면 개포주공1단지를 준공한 이후 두번째다.

디에이치 방배는 현대건설의 주거 서비스 플랫폼인 ‘H 컬처클럽’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주거 공간을 넘어 입주민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

이다. 현대건설은 직접 제공하는 세대관리 서비스와 전문 운영사와 협업해 단순한 커뮤니티 시설 제공을 넘어 문화·예술·교육·건강·취미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전점검을 하면서도 앱을 통해 20개가 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사전 예약 후 H 컬처클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아파트 커뮤니티로는 최대 규모인 H시네마와 북카페에서는 최신 영화 상영과 프라이빗 북콘서트가 열리며, 서울옥션블루의 프라이빗 도슨트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조경은 아티스트를 연상



/현대건설

토록 조성됐다. 현대미술관의 왕실의 정원 같은 ‘로얄 보타닉’ 콘셉트로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이 곳곳에 배치됐다. 계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H아트밸리는 클럽하우스에서 워터게이트까지 이어지며, H네이처밸리는 협곡의 풍경을 담아 국내 최장 규모인 340m 석가산으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단지 상징목으로는 함양에서 옮겨온 살구나무와 산청 메타세쿼이아, 강릉 소나무, 경주 팽나무 등이 자리했다.

세대 내부에서는 AI 기반 주거 서비스가 적용됐다. 특히 빌트인 음성인식 시스템인 ‘보이스홈’으로 조명과 난방 등을 제어할 수 있다.



디에이치 방배 단지 내 수영장. /안상미 기자

김기만 디에이치 방배 현장소장은 “디에이치 방배는 조경과 커뮤니티, 주거서비스 특화 단지”라며 “방배에 이어 향후 반포와 한남, 압구정에서 디에이치 문화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4년 8월 분양 당시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84㎡와 전용 59㎡가 각각 22억4450만원, 17억2580만원이었다. 올해 4월 전용 84㎡가 36억9295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디에이치 방배의 준공은 다음달 말, 입주는 9월 초로 예정돼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양종희 “AI 기반 일하는 방식·금융상품 재설계” 금융당국,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찾는다

〈KB금융그룹 회장〉

KB금융그룹 경영진 워크숍

270명 참석… 중장기 경영전략 논의
WM 재설계·AI 전환 가속화 등 어젠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시스템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보고, AI를 기반으로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경남 사천 KB인재니움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머니무브는 위기가 아니라 WM(자산관리)과 자산운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생산적 금융은 KB의 CIB(기업·투자금융)와 중소기업 비즈니스 역할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및 경쟁 환경 속에서 그룹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고, 계열사 간 협업을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룹 경영진 약 270명이 참



지난 10일 경남 사천 KB인재니움연수원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CEO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석했다.

양 회장은 “금융그룹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경쟁력은 고객에게 종합적인 금융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AI 대전환 그리고 머니무브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열사가 고객을 중심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통상의 관성을 넘어선 가장 다른 생각으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다음 3년(2027~2029년)을 목표로 현재 수립 중인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경영진들은 자본시장 성장과 머니무브, 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 변화, 생산적 금융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전망하고, KB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함께 점검했다.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의 5대 핵심 어젠다는 ▲WM(자산관리) 및 연금사업 모델의 재설계 ▲차별적인 중소법인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그룹 CIB 및 자본시장 협업 체계 강화 ▲보험 비즈니스 및 투자운용 역량 선진화 ▲그룹 AI 전환 가속화로 드맵 수립 등이다. 다양한 개별 토론 세션을 통해 계열사별 실행과제를 구체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문가 특강에는 “AI, 모든 산업을 재설계하다”를 주제로 KB증권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이 ‘AI를 통한 향후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변화’를 예상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안상미 기자

전월세 금융지원 등 검토

금융당국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주택매매 지원보다 전월세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향이다. 다만 전월세 지원이 전셋값을 자극하고, 나이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생애최초 관련 규제완화나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상품의 대상 주택 기준 현실화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현재로서는 금융위가 주담대 대출한도 완화로 매매를 지원하기보다는 전월세 지원부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집값 안정을 목표로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 집값이 오른 것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완화해주는 것은 정책 근본이 흔들리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의 전월세 부담은 최근 더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이어진 데다 지난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임대 매물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전월세 지원 방안으로는 저리 대출을 확대하거나 보증 한도를 늘려 실질적인 대출 여력을 높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지원책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전월세 대출이 확대될 경우 전세 수요를 자극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점을 가장 큰 부담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세 제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매 지원을 확대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면 전셋값을 밀어올릴 수 있는 만큼 당국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부담이 적지 않다”며 “과거와 같은 대출 확대 방식보다는 새로운 지원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전국 3개 단지 753가구 분양… 모델하우스 11곳 오픈 예정

분양 캘린더

7월 셋째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75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46가구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 울산 울주군 온양읍 ‘센텀엘카사’ 등 3곳에서 청약 행사를 진행한다. 동문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8층~지상 최고 29층, 3개동, 전용면적 46~62㎡, 총 301가구 중 7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초역세권 단지로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편리하다.

모델하우스는 강원 춘천시 장학리 ‘춘천리버뷰아파트’, 경기 의왕시 삼동 ‘의왕역SK뷰’, 경남 거제시 상동동 ‘센트레

빌아스테리움거제’ 등 11곳이 오픈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장학리 일원에 ‘춘천리버뷰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62가구 규모다. 단지는 장학초를 비롯해 후평중, 강원중·고, 춘천여고 등을 도보통학할 수 있고 후평동 학원가도 가깝다.

/안상미 기자

캠코, 8116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15일까지 온비드 통해 참여 가능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811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775건을 공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1693건, 동산 82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87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29건을 포함해 총 457건이 공매된다. 특히 감정이 70% 이하인 물건도 1243건 포함한다.

공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 용인 1호 팹 2029년 가동… AI 반도체 증설전 속도

정부 국가산단 조성 일정 발맞춰 당초 계획보다 최대 2년 앞당겨 올 하반기 부지조성·2027년 착공 3GW 전력망·공업용수 공급 관련 마이크론·TSMC 증설경쟁 대응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호 생산공장(팹)의 가동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긴다.

정부의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방침에 맞춰 투자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와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보 시점을 최대 2년 앞당기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총 6기의 팹 가운데 1호기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거론되던 2030~2031년보다 1~2년 빠른 일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합동 점검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남은 3년 반의 시간표다. 2029

년 가동을 역산하면 올해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되고 2027년 중 팹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 최첨단 팹 건설에는 통상

2년가량이 걸리는 만큼 토지 보상과 수용 재결,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인허가나 보상 절차가 늦어질 경우 조기 가동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생산시설 못지않게 전력·용수 인프라도 성과를 기를 변수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3기가와트(GW) 규모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조기 착공과 송전망 구축 일정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업용수 역시 단계별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용인 국가산단 완공 시점을 2047년에서 2040년으로 7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는 경쟁사들의 전방위 증설 공세가 자리한다. 마이크론은 2035년까지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총 2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 약 14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나섰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650억달러를 들여 첨단 파운드리 공장 3곳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최근 나스닥 미국 주식에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확보하며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1호 팹 가동이 앞당겨지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조성 시점도 함께 빨라질 전망이다. 주요 소부장 기업들도 용인 거점 확보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시설은 공장만 먼저 완성된다고 가동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라며 "용인 1호 팹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 협력사 투자와 인프라 구축, 공급망 형성 시제도 함께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203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배터리 3사, 전기차·ESS에 실적반등 기대

LG엔솔 2분기 영업이익 1133억
삼성SDI·SK온 적자폭 축소 전망
유럽 전기차·북미 AI 수요 확대

전기차 배터리 출하 회복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하반기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커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에 흑자 전환을 기록한 데 이어 삼성SDI와 SK온도 손실 규모를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5602억원, 영업이익 1133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2078억원의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북미 ESS 물량과 원통형 배터리, 유럽 중저가 전기차용 파워 배터리 출하 증가 등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LG에너지솔루션의 흑자 전환에 이어 삼성SDI와 SK온도 2분기 손실 규모를 줄이며 실적 회복 흐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는 2분기에 매출 3조36704



억원, 영업손실 74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영업손실 3978억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81.3% 감소한 수준이다. 손실 감소에는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비전기자용 배터리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백업유닛(BBU)에 쓰이는 배터리 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SK온 역시 2분기에 적자 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그룹 미국 조지아 공장에 공급되는 배터리 물량이 늘

어난 데다 유럽 전기차 판매 회복으로 현지 출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유럽 전기차 판매 회복과 북미 ESS·데이터센터용 배터리 수요 확대가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5월 유럽연합(EU)의 순수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95만521대로, 전체 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 15.3%에서 20%로 높아졌다. 프랑스와 독일의 순수전기차 등록 대수 역시 각각 55.4%, 40.9% 증가해 유럽향 배터리 출하 회복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에서는 전력망용 ESS와 AI 데이터센터용 UPS·BBU 수요가 늘면서 비전기자용 배터리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삼성SDI는 데이터센터용 UPS와 BBU 판매를 늘리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연말까지 북미 ESS 생산능력을 50GWh 이상으로 확대해 현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LS일렉트릭, 2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결

노사, 미래 전략사업 투자 확대 공감
수출 12억달러 달성 기념 상생 협약

LS일렉트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임금 및 단체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글로벌 전력시장 호황에 대응해 직류(DC) 등 미래 전략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 기회를 선점하는 데 근로자와 경영진이 뜻을 모았다.

LS일렉트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임금·단체협약 위임 및 수출 12억달러 달성 기념 근로자-경영진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채대석 대표, 이호정 노조위원장,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맞춰 생산과 연구개발, 미래 사업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이뤄졌다.

구자균 회장은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회사를 믿고 대응적인 결단을 내려준 LS일렉트릭 노동조합과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근로자와 경영진이 한마음으로 초격차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직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가운데),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왼쪽), 이호정 노조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열린 '임금·단체협약 위임 및 수출 12억달러 달성 기념 근로자-경영진 상생 협약식'에서 임단협 위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일렉트릭

류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간다면 글로벌 전력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연속 무교섭 타결의 배경에는 실적과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이어온 점이 작용했다. 성과에 따른 보상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속하며 상호 신뢰를 쌓아왔다는 평가다.

/원관희 기자

에코프로, 전기차 150만대분 니켈 확보

인니 1·2단계서 연 6만5000톤 확보
헝가리 양극재 공장과 공급망 연계

에코프로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투자를 통해 전기차 약 150만대 생산에 필요한 니켈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됐다. 확보한 니켈을 헝가리 양극재 공장과 연계해 미국과 유럽의 통상 규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유상증자 추진 배경과 자금조달 목적, 사용 계획 등을 설명했다 고 12일 밝혔다.

조달 자금은 인도네시아 BNSI 니켈 제

련소 지분 투자 등에 활용된다. BNSI는 인도네시아 국영 광산기업 PTVI(PT Vale Indonesia) 등과 추진하는 합작 사업으로,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가 대주주로 참여한다.

BNSI 제련소에서 생산되는 니켈은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드라인상 'Non-PFE(비금지외국기관)' 원료로 분류돼 미국 시장의 배터리 소재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에코프로 그룹은 지난 4년간 인도네시아 1단계 사업에 약 8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2만9000톤의 니켈 수급권을 확보했다. BNSI를 포함한 2단계 사업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3만6000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두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니켈은 연간 총 6만5000톤으로 전기차 약 1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합친 국내 연간 자동차 내수 판매량에 육박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니켈은 지난 5월 상업생산을 시작한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과 연계된다.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에 연산 5만4000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인도네시아산 Non-PFE 니켈을 헝가리 공장에서 양극재로 생산해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과 유럽연합·영국 무역협정(TCA) 등 역내 규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완성차 업체와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도 헝가리 공장을 통한 양극재 공급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관희 기자

상장사 84%, 상법 개정 후 이사회 운영 변화

대한상의, 상장사 300곳 조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시행 1년 만에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이 사내 검토 절차와 외부 자문을 강화하는 등 이사회 운영방식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한층 강화되면서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소송 우려와 법적 부담으로 투자와 사업재편 등 주요 의사결정을 마루거나 보류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 조

사' 결과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방식이 달라졌다는 응답이 84.3%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준법팀의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하거나 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았다. 외부 전문가의 법률·회계 자문 확대가 45.7%로 뒤를 이었고 이사별 찬반 의견과 사유를 이사회 의사록에 상세히 작성한다는 응답은 43.7%였다.

이 같은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9.6%가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선박·해양플랜트 기자재 전문기업서 ‘고체수소’로 탈바꿈

혁신기업 돋보기

성원기업 정 중 대표

93년 설립, 매출 500억 규모 회사로
탱크 탑 유닛 등서 ‘고체수소’ 주목

국내 최초로 수소저장합금 활용
저압·대용량 고체수소 저장기술

“고체수소 근거 법규·규정 전무
안전 가장 중요… 기술인증 계획”



정중태 성원기업 대표가 부산 강서구에 있는 본사에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35년 가까이 선박·해양 플랜트 기자재를 제조해 국내외에 공급했던 기술혁신기업이 친환경 수소 회사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성원기업. 이 회사는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동해 그린수소 실증단지를 활용해 10kg급 고체수소 저장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성원기업이 자체 연구 역량을 더해 만든 결실이다. 회사는 40kg(1㎡)급 대용량 시스템 실증도 끝냈다.

고체수소 10kg은 현대차의 수소차 브랜

드인 배소를 두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정중태 성원기업 대표는 “전기가 필요한 곳에 수소 연료는 꼭 필요하다.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수소가 원자력보다 안전하다고 검증되면 수소시장은 반드시 올 것이다. 수소는 우리의 미래먹거리”라고 신사업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1993년 성원기업을 설립해 지난해 기준 매출 500억원 규모의 회사로 키웠다. 성원기업은 부산 강서에 있는 부산공장 뿐만 아니라 사천공장, 목포공장 등 전국 5곳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조선·

해양·육상플랜트에 필요한 탱크 탑 유닛(tank top unit), 패키지 유닛(package unit) 등 핵심 모듈 유닛을 설계·제조·공급해 왔다. 한화오션, HD현대삼호, 현대미포조선, HD현대중공업 등이 주요 고객이다.

외길을 걸어오던 그는 미래 에너지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는 2023년 1620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5000억 달러로 3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소 중에서도 성원기업이 집중하고 있

는 분야는 바로 고체수소다.

고체수소를 만들기 위해선 2미크론(μm) 크기 정도의 입자로 된 티타늄 기반의 합금(AB합금)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찾기무다. 이를 ‘수소저장합금’이라고 부른다. 이 수소저장합금은 일정 온도·일정 압력 이상의 수소에 노출되면 금속수소화물을 만들며 수소를 저장한다. 이 금속수소화물은 압력이 낮아지면 합금으로 환원되면서 수소를 방출한다.

성원기업은 국내 최초로 수소저장합금을 활용한 저압·대용량 고체수소 저장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회사 방일호 소장은 “액화수소를 만들기위해선 -253℃의 극저온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체수소는 태양광 전력만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고 저장성은 액화수소와 유사하다. 오래 보관해도 손실율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수소저장합금기술 ▲저압 고체수소 저장용기 기술 ▲열관리 시스템 기술 ▲제어·모니터링 기술 ▲시스템 통합·운전기술 등이 필요하다.

사업 영역도 그린 수소 생산, 수소 저장, 수소 운송·공급 뿐만 아니라 수소 선박·연료전지 발전·모빌리티·산업발전용

등 활용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정 대표는 “고체수소를 통해 우리가 우선 타깃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발전분야다. AI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수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고체수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설비·시스템 구축에서도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거운 고체수소의 특성을 감안하면 수소를 에너지로 쓰는 지게차 등에도 당장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아직 고체수소에 대한 법규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업화에 걸림이 먼 상황이다.

“현재의 법규나 규정은 모두 액화수소에 관련된 것들로, 고체수소에 대한 근거가 전무한 것이 안타깝다. 개척자 정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안전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기업이 안전사고 등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처음 가는 길이니 만큼 완벽한 기술을 통해 모든 인증을 받고 갈 계획이다. 그후 우리 기술을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부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에몬스, 하반기 트렌드 ‘하이퍼 테일러드’

기성품 넘어 일상·휴식 맞춤 제품
카테고리별 신상품 80여종 공개

에몬스가 하반기 가구 메인 콘셉트로 ‘정밀한 디테일의 미학·하이퍼 테일러드(Hyper-Tailored)’를 제안했다.

하반드 트렌드 키워드인 ‘하이퍼 테일러드’를 통해선 가구가 단순한 기성품을 넘어 일상과 휴식을 맞춤 제공할 수 있는 디테일을 담은 웰 메이드 가구를 만들겠다는 철학을 담았다.

아울러 가구의 본질적인 기능성을 고도화하고 맞춤형 편안함을 시각화해 침대, 매트리스, 소파, 다이닝, 옷장 등 카테고리별 신상품 80여 종을 공개했다.

12일 에몬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 본사에서 대리점주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FW 디자인 트렌드 발표회’를 열었다.

품평회에서 기능성 수면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슬립테크 기반의 하이엔드 매트리스 제품과 주력 가격대인 중가·중고가 핵심 라인을 두루 선보였다.

에몬스가 제안한 AI 슬립케어 매트리스 ‘힐로(Hilo)’는 수면과 건강, 휴식을 하나의 경험으로 확장한 스마트 헬스케어형



에몬스는 ‘2026 FW 디자인 트렌드 발표회’를 열고 하반기 가구 메인 콘셉트로 ‘정밀한 디테일의 미학·하이퍼 테일러드’를 제안했다. 발표회 참석자들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에몬스

모델이다. 체형 파악 기반의 밀착 마사지 와 3D 척추 마사지 모듈, 온열 시스템을 정밀하게 접목해 개인 맞춤형 수면 케어의 기술력을 보여줬다.

거실 공간을 책임지는 소파·카테고리에서는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딥 시트(Deep Seat)’ 및 ‘스윙 기능’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 대표 신제품인 ‘세레니(Sereni)’는 이태리 JBS社의 최상급 황소 면피 가죽에 최소 절개 공법 디자인을 채택해 소재 고유의 미학을 극대화한 하이엔드 카우치 소파다.

아울러 소비자의 세분화된 취향을 공략

하는 30여종의 소파 패키지도 완성도 높게 제안했다.

침실과 다이닝 공간 역시 ‘하이퍼 테일러드’에 걸맞은 정밀한 마감과 무드 연출이 돋보였다. 침실 가구는 따뜻한 뉴트릴 컬러 기반에 패브릭과 우드, 연골드 메탈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는 절제된 호텔 스위트 감성을 추구했다.

에몬스 관계자는 “하반기 프리미엄 가구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고히 다지고 고객의 삶에 가장 완벽하게 맞춤형 ‘하이퍼 테일러드’ 리빙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SK인텔릭스, 서울 DDP에 ‘나무엑스’ 공급

서울디자인재단과 디자인 발전 ‘맞손’
DDP 방문객에 AI 접목 공간 경험 선사

SK인텔릭스의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UHX)’가 서울 DDP에 들어간다.

SK인텔릭스는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시 디자인 산업 발전 및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스마트 디자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업의 핵심은 ‘나무엑스’를 DDP에도 입하는 것이다. 나무엑스는 DDP 방문객들에게 자율주행 기반 에어 솔루션, 바이탈 사인 체크 등을 제공하여, AI 기술이 접목된 고도화된 디자인 공간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상호 운영하는 디자인 사업의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과 첨단 AI 기술이 결합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방



안무인 SK인텔릭스 대표(오른쪽)가 서울디자인재단 차장희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인텔릭스

침이다.

안무인 SK인텔릭스 대표는 “세계 최초의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가 서울의 상징적인 디자인 랜드마크인 DDP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中企 차세대 후계자 교육 지원

‘중소벤처기업이음학교 장기과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이음학교 장기과정’을 새롭게 연다.

12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 과정은 차세대 후계자를 위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이

달 31일까지 중진공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안산), 충청(천안), 호남(광주), 대구(경북(경산), 부산(경남(창원)) 등 5개 연수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새로 개설된 장기 과정은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엄선된 강사진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정예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1박2일 단기과정과 달리 장기과정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중진공은 교육 참여에 따른 중소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체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이번 과정은 교육생의 영위 업종과 기업승계 진행 상황을 반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 교육과정을 조율하는 ‘수요자 맞춤형 환류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신세계까사, 아파트 입주 수요 공략 박차

까사미아·마테라소 앞세워

신세계까사(SHINSEGAE CASA)가 까사미아와 마테라소를 앞세워 올 하반기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입주 수요 공략에 본격 나선다.

12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에서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약 3만 가구에 달할 예정인 가운데 수요에 맞춰 해당 단지 대상 주요 입주 박람회 참가와 함께 인근 지역 까사미아와 마테라소 매장을 중심으로 고객 맞춤형 혜택 및 전문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래미안 트리니원과 디에이치 방배

는 최근 실거래가가 각각 50억원, 36억원에 달하는 등 하이엔드 주거 시장의 대표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까사미아와 마테라소의 프리미엄 디자인 가구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안하며 입주 고객의 높은 안목과 라이프스타일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전략이다.

우선 매장 방문 고객과 박람회 고객 대상으로 ‘입주클럽’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 10% 특별 할인과 더불어 구매 금액에 따라 신세계상품권 증정과 굿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하며 소파와 매트리스, 다이닝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패키지 프로모션도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하나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평가·보상 갈등에 무너진 ‘무노조’… SI업계 노사관계 재편

삼성SDS, 성과급제도 개편 불만 제기
현대오트오에버, 평가 체계 개선 요구
LG CNS, 노조 설립 직원의견 수렴중

‘무노조’ 기조를 유지해 온 대기업 시스템 통합(SI) 업계의 노사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근 삼성SDS를 시작으로 현대오트오에버, 신세계아이앤씨까지 창사 첫 노동조합이 잇따라 출범하면서다. 그 동안 경영진이 주도해 온 평가·보상 등 노사 간 의사결정 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에서 창사 41년 만에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어 현대오트오에버와 신세계아이앤씨도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노조가 설립됐다. 이달 들어 세 기업 모두 무노조 기조를 깨고 공식적인 노사 협상 장구를 마련한 것이다.

삼성SDS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구성원 반발이 계기가 됐다. 기존에 현금 인센티브 성격(PI)의 성과급을 폐지하고 자사주로 지급하는 보상 제도를 추진



이준희 삼성SDS 사장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 삼성SDS 프라이빗 부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삼성SDS

했다. 연봉의 20%를 기준으로 당해 세금 공제 전 영업이익 증가율과 주가 수익률에 따라 실제 지급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은 경영진이 성장성이 높은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삼성SDS의 지난해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15% 이상해 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IT 서비스에서는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주식 보상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 프로젝트 사업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다.

다만 임직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 지급 방식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동의율은

40.0%에 그쳤다. 과반이상의 임직원들이 주가 변동성과 퇴직금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혀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이후 보상체계와 인사제도 결정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가 누적되며 지난 6일 노조 설립으로 이어졌다. 현재 임직원 1만1000여명 중 조합원 6000명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가와 연동한 보상 체계는 근로 의욕을 고취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다만 기업의 실적과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하거나 주식 시장이 약세한 경우 실질적인 보상 규모가 감소할 수 있고 이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대오트오에버는 지난 8일 전국화학산업 유식품노조 산하 지회 형태로 노조를 설립했다. 현재 인사평가·보상 기준 공개와 객관적인 평가체계 마련, 제도 변경 시 노사 합의 등 전반적인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축소와 불투명한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과 평가 체계에 대한 공정성 지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같은 날 공식 활동에 들어간 신세계아이앤씨 노조는 일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구성원 의견 수렴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게 계기가 됐다. 특히 그룹 시스템 운영·관리(SM) 체계 개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업무가 외주화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와 함께 국내 SI 시장을 양분하는 LG CNS는 노사협의기구인 ‘노경협 의회’를 통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SK AX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으나, 현재까지 회사와의 주요 교섭 주체로서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은 약 35%로 전체 평균의 약 3배 수준인 반면 300명 미만 사업장의 총 조직률은 7% 넘지 못해 규모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메타, AI 인프라 베팅… 1450억달러 투자

오늘 AI

9월 자체 AI 칩 ‘아이리스’ 양산
내년 AI 인프라 규모 2배 확대

AI 인프라 과잉 투자 논란의 중심에 선 메타가 오히려 투자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다. 남은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메타 컴퓨트’ 사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 시장에 AI 투자 둔화 우려를 키웠지만, 실제로는 자체 AI 반도체 양산과 초대형 데이터센터 증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AI 인프라 경쟁에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11월 IT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오는 9월 자체 개발 AI 가속기 ‘아이리스(Iris)’를 양산할 예정이다. 아이리스는 메타의 AI 반도체 플랫폼인 MTIA 계열의 차세대 칩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추천 시스템, 생성형 AI 서비스의 추론 작업에 활용된다.

이는 모든 AI 연산을 자체 칩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기보다 AI 서비스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전략에 가깝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에는 엔비디아와 AMD의 GPU를 계속 활용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AI 추론과 추천 알고리즘은 자체 반도체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AI 서비스 이용량이 늘어날수록 추론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비용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확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AP·뉴시스

하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메타가 AI 경쟁의 축이 ‘모델 개발’에서 ‘서비스 운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I 모델의 성능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상황에서 실제 서비스를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는 칩 개발 주기도 대폭 단축한다. 일반적으로 AI 반도체는 1~2년 주기로 신제품이 출시되지만 메타는 모듈형 설계를 적용해 6개월 안팎마다 새로운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칩 설계는 브로드컴이 맡고 생산은 TSMC가 담당한다.

반도체와 함께 데이터센터 투자도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된다.

메타는 올해 약 7GW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

를 14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원전 여러 기의 발전 용량에 맞먹는 전력을 사용하는 초대형 AI 인프라다. 글로벌 빅테크 가운데서도 가장 공격적인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 중 하나로 평가된다.

대규모 설비 투자에 맞춰 핵심 부품 공급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메타는 삼성전자와 메모리 반도체, 샌디스크와 플래시 저장장치, 스미토모전기과 광통신 장비 등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타가 삼성전자로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받는지, 일반 서버용 D램을 공급받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HBM보다는 서버용 메모리와 저장장치 등 AI 데이터센터 전반에 필요한 부품 공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메타는 올해 자본지출(CapEx) 전망치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다. 서버와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포함한 올해 투자 규모는 최대 1450억 달러에 달한다. 메모리와 반도체 가격 상승, 향후 데이터센터 확보 비용 등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시장에서는 메타가 자체 컴퓨팅 자원을 외부 기업에 판매하는 ‘메타 컴퓨트’ 사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인프라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에서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KT 박윤영 대표(맨 앞 가운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KT, 외부 전문가 영입… 정보보호 체질 개선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

KT가 중장기 보안 전략을 수립할 외부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정보 보호 체질 개선에 나선다.

KT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 전문가 협의체다. 정보 보호 전략과 주요 정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전문가 구성은 정책·제도,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AI·제로트러스트 분야 등 다양하다.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박준식 이사, 청주대학교 정은수 디지털보안학과 교수, 아주대학교 객진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윤명근 인공지능학부 교수, 경희대학교 박철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홍선 고문, 법무법인 세종 최광희 고문 등이다.

핵심 자문 영역은 AI 보안,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이다. 내용은 AI 기반 공격과 생성형 AI 악용 등 미래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과 AI 보안 기술 도입 및 활용 정책 등이다.

/조민선 기자

LGU+, 차세대 통신 품질 국제표준 제안

통신 지연시간 150ms 이내로 관리

LG유플러스가 차세대 보안 환경에서도 통신 품질을 유지하는 국제 표준 개발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양자 보안 통신의 품질 관리 기술 개발 방향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은 차세대 보안 통신 환경에서 품질 관리 기술을 표준화하는 과제를 채택했다. ITU-T는 전 세계 통신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로 산하 조직(SG13)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 서비스와 품질 등 연구한다. 국제 표준은 회원국과 회원사 간 협의를 통해 개발된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회의에 참석했다.

회사는 행사에서 아이오티커뮤니케이션즈와 공동 개발한 ‘지연 관리 품질 관리 기준’을 제안했다. 통화 품질 유지 기술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지연시간을 약 0.15초(150ms) 이내를 목표로 설정한다는 설명이다.

궁극적으로 양자내성암호(PQC)와 양자키분배(QKD) 등 차세대 보안·암호 기술이 적용되는 환경에서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조민선 기자

독일 달군 K-콘텐츠… 유럽 공략 본격화

코트라, 독일서 체험관 운영 성료

최근 독일에서 K-팝과 드라마를 넘어 웹툰과 캐릭터 지식재산권(IP) 상품까지 인기를 끌면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유럽 시장 공략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소비에 머물던 한류가 굿즈와 문구, 식품 등 실물 소비로 확산되

며 K-콘텐츠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정보기술(IT) 및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0일부터 아틀란(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K-포켓에서 ‘2026 독일 K-콘텐츠 체험관’을 운영했다. 최근 독일에서 K-웹툰과 웹소설, K-팝,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체험관에는 웹툰과 캐릭터 등 자체 IP를 보유한 국내 기업 7곳이 참가했다. 단순 전시를 넘어 작품 세계관을 반영한 체험형 공간과 포토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캐릭터 굿즈 및 식품 등을 선보이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빛나 기자

롤러코스터 피 양방향 베팅... 인버스·레버리지 거래량 상위권 양분

6~7월 ETF 거래량 상위 5개에 인버스 3종·레버리지 2종 포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도 급증
급등락 장세에 단타 수요 몰리며
짖은 손바뀜이 변동성 더 키워

자영업자 박모(40)씨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지난달 23일 큰 손해를 봤다. “폭락은 기회”라며 집에 있던金を 팔아 같은 상품을 더 사들였다. 박씨는 “계속 주식장만 보니 삶이 주객전도된 느낌”이라면서도 “기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요즘 ‘단타’(짧은 기간 사고 팔기)에 빠진 직장인 최모(29)씨는 “장기 투자가 정답인 걸 알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해 기다리는 동안의 기회비용이 크게 느껴진다”며 “급락장에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자주 매매하면서 하루에 밥값만 벌자고 마음을 먹으니 속이 그나마 편하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씩 널뛰



ChatGPT로 생성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쏠리는 개인 투자자 자금’ 관련 이미지.

는 장세가 이어지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사고파는 단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ETF 거래량 상위 5위 내 인버스 상품이 3종, 레버리지 상품이 2종 각각 포함됐다. 주식 거래량은 일정 기간 실제로 체결된 주식(계좌) 총 수량을 말한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해당 기

간 매수·매도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거래량 1위는 ‘KODEX 200선물인버스 2X’로, 해당 기간 총 3146억좌가 거래됐다. 2위와 5위는 각각 ‘KODEX 인버스’(304억좌)와 ‘TIGER 200선물인버스 2X’(29억좌)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ETF 3종은 모두 코스피 200 선물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다. 특히 K

ODEX 200선물인버스 2X와 TIGER 200선물인버스 2X는 지수 하락 시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곱버스’ ETF다.

3위는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50억좌), 4위는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42억좌)였다.

코스피가 상승가도를 달리던 연초부터 지난 5월까지 ETF 거래량 상위권은 대부분 인버스 상품이 차지했다. 상위 5개 중 4개가 인버스였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르자 손실물이 높아진 인버스를 팔거나 반대로 헤지 수단으로서 인버스를 매수하는 경우가 모두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사상 첫 ‘9천회’(코스피 9000)를 달성한 후 지난 9월 7291.91까지 밀리는 등 코스피가 급등락하자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함께 확대됐다.

또 연초부터 지난 5월까지 거래량 상위 5개 ETF 중 레버리지 상품은 ‘KODEX 2차전자산업레버리지’가 유일했던 것과 달

리, 6~7월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2종이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개로 확대해서 보면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6위), ‘KODEX 삼성전지단일종목레버리지’(7위),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0위)까지 총 5개가 포함됐다.

거래량 상위 10개 중 절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짚은 손바뀜이 다시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단기매매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짧은 시간에 ‘한 방’을 노리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대상으로 한 단타 쏠림이 특히 심하다. 레버리지 상품의 공급이 기초자산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를 흔들고, 다시 코스피 전체 변동성으로 번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장세가 뚜렷하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스페이스X, 한 달 만에 우주 ETF 5000억 매도

국내 7개 우주 ETF 개인 순매도
한 달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4%
공모주 편입 무산에 실망감 확산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를 편입(예정)한 국내 우주 관련 ETF(상장지수펀드)를 5000억원어치 팔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대와 달리 국내에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모가에 스페이스X를 편입하지 못한 데다가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상장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국내 7개 우주 ETF에서 개인 순매도 금액은 총 4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7개 ETF 중 개인의 매수가 매도보다 높은 ETF는 단 1개도 없었다.

이들 7개 ETF 평균 수익률은 -14.0%로, 지난달 12일 4조 6463억원이었던 이들 ETF의 총 순자산은 지난 9월 2조 859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순자산 3분의 1(1조 7864억원·38.45%) 이상이 증발한 셈이다.

ETF별로 보면 TIGER 미국우주테크에서 가장 많은 3046억원의 개인 순매도가 발생했다. 이 ETF는 스페이스X를 25.16% 비중으로 담고 있다.

이어 1Q 미국우주항공테크(14.58% 비중) 548억원, KODEX 미국우주항공(23.27% 비중) 517억원,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29.91% 비중) 482억원 등의 순으로 순매도가 많았다.

TIGER 미국우주테크에 개인 순매도가 집중된 것은 해외주식형 ETF 1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급격히 전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여전하다. 우주 인프라와 통신망, 인공지능(AI) 컴퓨팅 역량을 결합한 차세대 인프라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면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모건스탠리의 애덤 조너스 애널리스트는 최근 스페이스X에 대해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목표주가를 300달러로 잡았다. 7월 9일 종가 152.16달러 기준으로 두 배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달러,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75달러를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NH-Amundi, 청년들에 자산운용 실무기회

디지털마케팅 등 4개 직무 경험
8주간 멘토링·팀 프로젝트 수행

NH-Amundi자산운용은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해 청년 62명에게 자산운용 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청년 고용 지원 정책으로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민간 기업의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NH-Amundi자산운용은 운영기관 크래프박스가 진행한 프로젝트형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참여 청년들은 지난 5월 사전 직무교육을 거쳐 6월 말까지 약 8주간 각 분야 실무진의 멘토링 아래 팀 단위 프

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지난 3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회사는 ▲디지털마케팅 ▲퇴직연금마케팅 ▲채권리서치 ▲ESG리서치 등 4개 직무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각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채널 마케팅 기획 및 콘텐츠 제작·운영, 국내외 펀드 분석 및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서 작성, 기업 신용분석 및 채권 발행 타당성 검토, 기업 ESG 평가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경험했다.

각 프로젝트는 참여 청년이 실제 직무 산출물을 완성하도록 설계됐다. 회사는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자산운용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금융업계 진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허정윤 기자

“휴가철 장거리 운전·집중호우 사고 위험 대비하세요”

금감원 Q&A

차량 침수사고 65% 장마철 집중 사고 땀 가드레일 밖 먼저 대피
긴급대피알림 사칭 문자도 주의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장거리 운전과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예방 요령과 자동차보험 활용 방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명 피해 증가 속도가 사고 건수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침수사고 역시 연간 사고의 약 65%가 장마 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비트박스’



ChatGPT로 생성한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전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운전 수칙을 나타낸 이미지.

행동요령을 소개하며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가드레일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이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약 5배 높아 차량 안이나 도로 위에 머무르는 행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이후에는 사고 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동승자

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 안내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가급적 운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발 전에는 와이퍼와 타이어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침수 위험지역에서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대피알림을 받으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인명과 차량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긴급대피알림은 별도 앱 설치나 특정 인터넷 주소 접속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정윤 기자

교보증권, 비전 2030 선포 종투자 도약 속도

미래형 비즈니스·투자 경쟁력 강화
AI 기반 디지털 전환 전략도 구체화

교보증권이 2030년을 목표로 한 새 비전을 발표하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구체화했다. 미래형 비즈니스 역량과 투자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종합금융투자회사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교보증권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및 비전 2030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부·점장 120여 명이 참석해 상반기 영업 성과 및 재무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부문별 핵심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임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박성혁 AI 비즈니스 전문가를 초청 ‘AX(인공지능 전환)’ 시대, 증권업의 재발견’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금융산업에 미칠 변화와 증권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살펴

보며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이어 열린 ‘비전 2030’ 선포식에서는 교보증권의 새로운 비전인 ‘혁신과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금융투자 파트너’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돼 그 의미를 더했다. 교보증권은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미래형 비즈니스 역량 강화 ▲신뢰 기반의 동반자적 가치 지향 ▲전방위 투자 솔루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새로운 비전 아래 핵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는 지금이 도약의 전환점”이라며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자세로 시장의 흐름을 통찰하고 우리만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아빠 육아휴직’ 40% 코앞… 내달부턴 ‘단기 육아휴직’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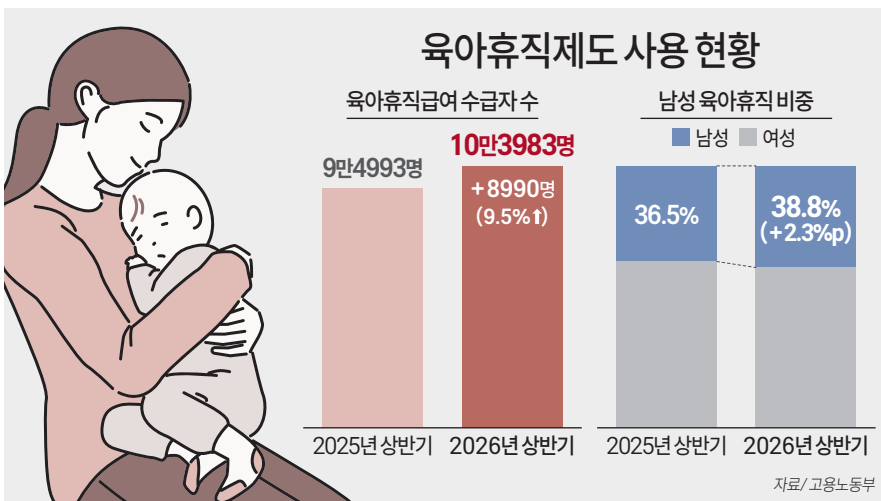
고용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상반기에만 근로자 20만명 활용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0.3만명

오는 9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1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일하는 부모들의 맞돌봄 문화 확산과 정부의 제도 개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만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40% 선 턱말까지 차오르며 ‘아빠 육아’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



산휴가 등 주요 4개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19만 9911명으로 2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34만 2388명)의 절반을 훌쩍 넘긴 수치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육아휴직의 가파

른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0만 3983명으로 전년 동기(9만 4993명) 대비 9.5%나 늘었다. 이 가운데 남성 수급자는 4만 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지난 2024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36.5%를 거쳐 올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경제적 지원 강화와 현장 여건 개선을 꼽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도 줄였다”며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1만 5820명으로 전년 동기(1만 328명) 대비 1.5배나 급증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굵직한 제도 개편을 이어간다. 당장 다음 달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등 갑작스러운 공백 시기에 연 1회, 1~

2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를 신설하고,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중부발전, AI로 똑똑한 ESS·전력망 구축

재생에너지 계통포화지역 ESS 구축
잉여 전력 저장·공급 스마트 전력망
AI 활용 중부발전 VPP 플랫폼 도입

한국중부발전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능형 전력망 체계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첨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본격 나선다.

중부발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계통포화지역 ESS 구축지원 사업’ 공모에서 관할 배전선로 1개소가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으로 발생하는 계통 접속 지연과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특히 중부발전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의 재무적 협력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설비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중부발전은 선정된 배전선로에 첨단 ESS 설비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의 잉여 전력을 저장하



한국중부발전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2026년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 ESS 설비 사업의 예상 조감도. /중부발전

고, 전력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스마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력망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AI 활용 중부발전 VPP(가상발전소) 플랫폼’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물리적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순히 설비를 설치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을 융합한 ESS 운영으로 전력망의 유연성을 확보해 가상발전소 시장의 선도 사업자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배전선

로 대상 ESS 구축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 접속을 돕고, 지역 전력망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와 ESS 등 첨단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극 도입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향후 계통 포화 현상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ESS 확대 설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만공사, 베트남 하이퐁 물류센터 확보

(주)동방 현지 자회사 동바비나 ‘맞손’ 네덜란드, 스페인 등 이어 다섯 번째

부산항만공사(BPA)가 또 하나의 해외 물류거점 확보에 성공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인도네시아, 미국에 이어 베트남에 다섯 번째 해외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12일 BPA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일 ‘하이퐁 물류센터 운영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주)동방의 베트남 현지 자회사인 동방비나와 체결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확보 전략’에 따라 유망 국가인 베트남에 물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하이퐁항 배후 ‘Deep C 산업단지’ 내 부지 1만 7183㎡에 연면적 1만 31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게 된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럽·동남아·북미·아세안을 잇는 해외 물류 연결망의 한 축을 추가로 갖추게 됐다. 앞서 2022년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2024년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 미국로스앤젤레스에 물류센터를 확보한 바 있다.

물류센터는 올해 9월 건축 인허가를 거쳐 건립공사에 들어간다. 내년 상반기 개장 후 2056년까지 약 3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물류센터가 자리하게 될 하이퐁 Deep C 산업단지는 베트남 북부 최대 산업단지다. 약 160개의 세계적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우리 기업 중에는 LG전자 등 26개 전자·제조업체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북부 최대 항만인 하이퐁항과 락후옌 심수항으로부터 약 15km 거리에 있다. 또 하노이 및 중국 국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연계도 뛰어나 물류센터 운영의 최적 입지로 꼽힌다.

공사는 이번 하이퐁 물류센터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중소·중견 회주기업의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부산항의 국제 물류 연결망을 한층 두텁게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수원-한화오션, 1GW급 ‘영광 칠해 해상풍력’ 추진

2029년 착공, 2032년 상업운전 목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화오션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다.

12일 한수원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10일 서울 한화빌딩에서 ‘영광 칠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조건 합의를 체결했다.

전남 영광군 해상에 들어설 ‘영광 칠해 해상풍력’은 총 설비용량 1020메가와트(MW) 규모 대형 프로젝트로, 원자력발전소 1기 발전 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오는 2029년 9월 착공해 2032년 10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수원의 재생에너지 개발



한수원과 한화오션 등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서울 한화빌딩에서 ‘영광 칠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합의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수원

역량과 한화오션의 해양플랜트·해상구조물 전문성을 결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오션은 특유의 해상구조물 제작 및 해양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한수원은 그간 축적된 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사업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사의 협력으로 영광 칠해 해상풍력 관련 사업개발 및 인허가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풍력 분야의 국내 공급망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일 한수원 재생수력사업본부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양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준·착공 10.5GW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달 영상기록장치 도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매립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장비를 도입한다. 이 같은 안전 장치를 하역·유도 등 사고 위험 작업군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폐기물 매립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혁신하고 산업재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는 영상기록장치(바디캠)를 이달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공사의 이번 바디캠 도입은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과 하역 중장비가 동시에 작업하는 매립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작업 구간과 상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업 환경에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용해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총 40대의 바디캠을 확보해 현장 하역 지도요원, 차량분배요원, 신호수 등 차량과 중장비 주변에서 작업하는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바디캠을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차량 유도 및 하역 작업 시 위험요인 모니터링에 집중 활용된다. 공사는 수집된 객관적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실제 촬영 영상을 활용해 실전형 안전교육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사장은 “현장 안전은 사소한 위험요인이라도 먼저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현장에 적극 도입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완벽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7월 27일 ~ 2027년 1월 26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7월 27일 - 2027년 1월 26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신 강화에 특목·자사고 약세... SKY 비중 6년 새 최저

종로학원, 대학알리미 자료 분석
특목·자사고 출신 비중 23.9%
2021년보다 합격자 516명 감소
교과 중심 대입·통합수능 여파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중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출신 비중이 최근 6년 새 최저로 떨어졌다. 우수 학생 간 경쟁으로 내신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특목·자사고에 교과 성적을 중시하는 전형 기조가 불리하게 작용한 데다, 통합수능 이후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과 의학계열 선호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별 신입생 출신고교 현황을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전체 입학생은 1만36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고·국제고, 과학고, 자사고, 영재학교 등 특목·자사고 출신은 3252명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했다. 최근 6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6월 모의평가일인 6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시스

년 가운데 가장 낮은 비중이다.

특목·자사고 출신은 2021학년도 3768명(30.4%), 2022학년도 3702명(30.4%), 2023학년도 3635명(29.6%), 2024학년도 3748명(28.5%), 2025학년도 3485명(25.9%)에 이

어 올해 3252명(23.9%)으로 감소했다.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합격자는 516명(13.7%) 줄었고 비중은 6.5%p(포인트) 하락했다.

고교 유형별로는 자사고 출신이 15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고·국제고 887명, 영

재학교 555명, 과학고 224명 순이었다.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과학고는 32.7%, 외고·국제고는 28.1%, 자사고는 5.7% 감소했다.

다만 영재학교는 2021학년도 521명에서 올해 555명으로 늘어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영재학교 학생들이 의학계열보다 서울대 공대와 첨단학과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데다, 첨단학과 확대와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의 특목·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1378명으로 전년도보다 6명 늘어 사실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려대는 1124명에서 1046명으로 78명(6.9%) 줄었고, 연세대는 989명에서 828명으로 161명(16.3%) 감소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종로학원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보다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이 확대되면서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이전보다 불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통합수능 체제에서 이

과생의 문과 교차지원이 이어지면서 문과 계열 학생 비중이 높은 외고·국제고가 정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졌고, 의학계열로의 지원 분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2028학년도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입시 환경 변화가 예정돼 있어 향후 특목·자사고 출신의 상위권 대학 진학 양상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최근 대입에서 비교과보다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이 강화되면서 특목·자사고 학생들의 상대적 강점이 예전보다 약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와 2028학년도 내신 5등급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입시제도 변화가 이어지는 만큼 특목·자사고의 상위권 대학 진학 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중학생이 만든 영화 8편 스크린 오른다

시나리오부터 연기·촬영·편집 참여
공감·소통·배려·협력 등 이야기 담아
내일부터 온라인 상영관서 작품 공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3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2026 서울학생 협력종합예술활동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협력종합예술활동 교육과정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시나리오 작성부터 연기, 촬영, 편집까지 직접 맡아 제작한 작품을 상영한다.

강동중학교의 ‘몽중탈출’, 강명중학교의 ‘온담’, 대원국제중학교의 ‘체인지’, 상계제일중학교의 ‘TEAM’, 신반포중학교의 ‘지워진 하루’, 용강중학교의 ‘지승자 박’, 잠신중학교의 ‘이모션메모리’, 중랑중학교의 ‘목련’ 등 8개 작품이 상영된다. 작품작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공감과 소통, 배려와 협력 등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개막식에서는 작품작 상영과 함께 학생들이 제작 의도와 과정을 설명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진행된다. 체험 행사와

축하 공연 등도 마련된다. 행사는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예몽TV’를 통해 생중계된다.

14일부터 31일까지는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영관을 운영해 작품작을 공개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작품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경험을 쌓았을 것”이라며 “이번 영화제가 학생들이 창작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진도군 ‘운림명승지구’ 일원 전경.

/진도군

진도 운림명승지구 야간 관광명소 탈바꿈

남도달밤 예술여행지 연말 완공

진도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운림명승지구’ 일원이 밤에도 화려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야간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진도군은 운림명승지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야간 경관을 더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운림산방일원 남도달밤 예술여행지 조성사업’을 올해 말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총사업비 38억 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계속사업이며, 군은 안내관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예술적 경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관 개선 작업을 이어왔다.

핵심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사업으로 운림산방 진입도로로부터 아리랑비까지 도로와 천변 공간에 가로등을 확충하고,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테크등)을 설치했다. 또한, 2차 사업으로 이와 연계한 ‘테마로드 야간경관조명’과 은은한 달빛 감성을 자극하는 ‘이색조형물’을 곳곳에 설치해 밤이 아름다운 예술 산책로를 완성했다.

특히, 이번 경관조명 설치로 그동안 야간 관광콘텐츠가 부족했던 운림명승지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화동관광지에 추진 중인 진경-진도산해도경사업의 하늘길 전망대, 환영(웰컴)센터가 결합되어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24시간 체류형 관광벨트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시상

부산시가 지난 10일 시청에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시와 구·군, 출자·출연기관 직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것을 계기로 유엔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같은 날을 인구의 날로 제정했다.

부산은 인구 문제가 특히 절실한 도시다. 1995년 389만 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 2025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 324만 명까지 감소했고, 2024년에는 6대 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 시민참여공모 시상,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중구청 정지영 주무관과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조혜경 팀장이 받았다.

최우수상은 어린이집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어린이집의 잔여 보육 자원을 연계하는 ‘방학 돌봄 매칭 플랫폼-우리동네 보육 징검다리’가 차지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서울배달+땡겨요 상반기 매출 819억

가맹점 6만곳·회원 291만명
중개수수료 2%·광고비 없어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819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다. 가맹점과 회원 수도 큰 폭으로 늘면서 이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서울배달+땡겨요 매출이 81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326억 원)보다 2.5배, 2024년 같은 기간보다 4.5배 늘어난 규모다.

6월 말 기준 누적 가맹점은 6만2000곳, 회원은 29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9.2%, 57.3% 증가했다.

서울시는 성장 요인으로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2% 중개수수료와 배달전용상품권, 할인쿠폰 등 소비자 혜택 확대, 신한은행과의 협업 프로모션, 가맹점 확대 등을 꼽았다.

서울배달+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최

대 9.7% 수준인 중개수수료를 2%로 유지하고 광고비를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월 매출 1000만원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민간 배달앱보다 최대 77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한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절감액은 약 163 원으로 추산됐다.

이용자 혜택도 확대됐다. 자치구 배달 전용상품권 이용 시 15% 선할인과 결제 금액의 5% 페이백, 할인쿠폰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광역 온라인 서울사랑상품권과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결제도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 819억원 가운데 516억원(63%)은 서울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지역 맛집 입점을 확대하고 배달 전용상품권 발행과 할인 프로모션을 지속하는 등 공공배달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충남, 국제관광박람회 2년 연속 대상

6개 시군 공동 홍보관 운영

충남도가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충남도는 최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관광박람회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300여 개 기관·업체가 참가했다.

충남도는 천안·계룡·금산·서천·청양·태안 등 도내 6개 시군과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지역 대표 관광지와 축제, 특색 있

는 관광자원을 연계해 선보였다. 시군별 관광 콘텐츠를 하나의 관광 브랜드로 묶어 홍보한 전략은 관람객과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년 개최 예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2027 섬비엔날레’를 비롯한 충남의 메가 이벤트를 집중 홍보하고,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관광 마케팅을 펼쳐 박람회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도와 시군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자 충남 관광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충남 방문의 해’와 2027년 메가 이벤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유출 땐 치명상”… 유통업계, 보안투자 총력

쿠팡, 지난해 보안에 1349억 투자
롯데쇼핑, ‘정보보호 경영’ 집중
이마트, 대응 매뉴얼 공식 명시
현대백, 정보보호 투자비중 상향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이 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평판 훼손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경험한 쿠팡을 비롯해 롯데,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들이 일제히 보안 투자와 전담 인력을 늘리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2일 유통업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따르면 주요 유통기업들은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쿠팡 주식회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전년 대비 51.6% 급증한 1349억 3672만 원을 기록했다. 유통업계에서 정보보호 투자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IT 투자액에서 정보보호가 차지하는 비



주요 유통기업들이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중도 5.2%로 상승했으며, 전담 인력 역시 내부와 외주를 합쳐 총 370.1명으로 전년보다 약 75%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정보보호 경영’을 올해 최상위 3대 중대 이슈로 처음 선정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 전년 대비 약 33% 증한 81억 원을 투자했으며,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공식 명시해 전사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했다. 현대백화점 또한 2030년대까지 전체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중 목표치를 기존 7%에서 10%

로 상향 조정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했다.

그 외 GS리테일(92억 원)과 CJ올리브영(54억 원)도 전년 대비 10% 이상 투자 규모를 키웠고, 무신사는 약 56% 늘어난 42억 원을 투입했다. 사업부 분사 등으로 공시상 금액이 소폭 감소한 롯데쇼핑과 G마켓 측도 실질적인 주요 사업부의 보안 투자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통업계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데에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목된다. 지난해 알려진 바로는 쿠팡, GS리테일, CJ올리브영, 머스트잇, 디올, 루이비

통, 티파니, 까르띠에, 파파존스 등이 외부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쿠팡은 지난해 3370만 건의 초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면서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여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유통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업종 특성상 주소, 전화번호, 카드정보 등 민감한 소비자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AI 초개인화 기술의 발전으로 유통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넘어 회원 개개인의 구매 이력과 관심사, 취향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가치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고객 신뢰를 결정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높아진 고객 눈높이에 맞춰 유통업계가 보안 인프라와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롯데마트, 베트남 16호점 ‘떠이난점’ 오픈

‘그로서리 전문점’ 모델 적용 매장
산단 개발·기업유치 활발 지역서
K-푸드, K-뷰티 특화존 등 운영

롯데마트가 베트남 남부 신흥 산업도시 떠이난시에 ‘떠이난점’을 열고 베트남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베트남 신규 출점은 2023년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점 이후 약 3년 만이다.

떠이난점은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점과 다낭·나짱점 리뉴얼을 통해 검증한 “그로서리 전문점” 모델을 적용한 매장이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점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으며, 다낭점과 나짱점도 리뉴얼 이후 매출이 30% 이상 늘었다.

떠이난시는 호찌민에서 북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도시로,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가 활발한 지역이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떠이난시에 위치한 롯데마트 베트남 떠이난점 매장을 방문한 현지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롯데쇼핑

접한 물류 거점이자 관광 수요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떠이난점은 지하 1층~지상 1층, 영업면적 약 2165㎡ 규모의 중소형 매장이다. 그로서리 상품 비중을 약 88%로 구성했으며 K푸드와 신선식품, 글로벌 소싱 상

품, K뷰티 특화존 등을 운영한다. 전체 상품의 약 15%는 글로벌 소싱존과 K푸드존을 통해 차별화 상품으로 구성했다.

매장 내 ‘요리하다 키친’에서는 K푸드를 비롯해 스시와 현지식 등 델리 상품을 판매한다. 김밥과 떡볶이, 닭강정 등 K푸

드 메뉴도 함께 선보인다. 이와 함께 ‘K-누들 스테이션’, ‘K-그로서리숍’, 자체 베이커리 브랜드 ‘종미소’를 운영해 한국 식품과 베이커리 상품을 판매한다.

신선식품 코너는 자체 신선식품 PB ‘FRESH 365’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산지 직거래 상품과 글로벌 식품을 확대했다. H&B 매장에는 ‘VT’, ‘TFIT’ 등 K뷰티 브랜드와 한국 다이소의 뷰티 상품을 포함한 화장품들을 판매한다.

떠이난점에는 롯데리아와 롯데시네마를 비롯해 병원, 게임센터, 키즈카페 등 생활 편의시설도 함께 입점했다.

이번 출점으로 롯데마트의 베트남 점포 수는 16개로 늘었다. 인도네시아 점포를 포함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총 64개 점포를 운영하게 된다.

롯데마트는 베트남 법인이 2022년 흑자 전환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연간 매출 4266억원과 영업이익 405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현대그린푸드, 정관장과 ‘홍삼 특식’ 선택

홍삼삼계탕 등 12종 메뉴

현대그린푸드가 여름철 단체급식 메뉴 차별화를 위해 정관장과 협업한 홍삼 활용 식단을 선보인다.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체급식에도 기능성 식재료를 접목한 메뉴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현대그린푸드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KGC의 인·홍삼 브랜드 정관장과 공동 개발한 홍삼 특식 메뉴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메뉴는 홍삼삼계탕을 비롯해 홍삼삼겹살 간장조림닭발, 고등어 홍삼 데리야끼

구이, 홍삼양파크림 순살치킨, 홍삼크림 치킨파스타 등 총 12종이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생선 등 다양한 식재료에 6년간 홍삼을 분쇄한 홍삼분과 홍삼 유래 식이 섬유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메뉴별 조리법을 달리해 홍삼 특유의 향과 맛을 줄이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린푸드에 따르면 인·홍삼 전문 브랜드와 협업해 홍삼 성분을 활용한 단체급식 메뉴를 선보이는 것은 업계 최초로.

이와 함께 단체급식 사업장 내 사내 카페에서는 정관장 제품을 활용한 음료도 운영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GS25, ‘TXT 연준’ 팬덤소비 공략 나서

협업 아이스크림 ‘사워레몬요거트’

편의점 GS25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연준과 협업한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며 팬덤 소비 공략에 나선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오는 16일부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과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요아정’, 디저트 제조사 ‘로로멜로’가 함께 기획한 ‘사워레몬요거트’ 아이스크림 2종(컵·바)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연준의 미니 2집 타이틀곡 ‘Ice Cream’ 콘셉트를 반영해 기획됐다. 컵 제품은 레몬 요거트 크림에 사과맛 젤

리를 더했으며, 바 제품은 요거트 사베트에 레몬 시럽을 넣고 화이트 요거트 초콜릿으로 코팅한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에는 신곡 콘셉트를 반영한 레트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컵 제품에는 미니 포토카드와 랜덤 스티커를, 바 제품에는 랜덤 스티커를 각각 동봉했다.

GS25는 최근 K-팝 아티스트와 협업한 빙과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올해 출시한 아이브, 카키 협업 아이스크림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차별화 상품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했다.

/신원선 기자

CJ온스타일

임직원 숏폼 영상 화제
누적 조회수 80만 돌파

여름 할인행사 ‘컴온블프’

임직원 랩 공연 영상 SNS 확산

CJ온스타일의 여름 할인 행사 ‘컴온블프’에서 임직원이 선보인 랩 공연 숏폼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화제의 주인공은 CJ온스타일의 1998년생 패션 상품기획자(MD)다. 컴온블프 첫날 열린 다이나믹 듀오 모바일 라이브 콘서트에서 다이나믹 듀오의 랩을 개사해 무대에 올렸으며, 공연 직후 관객과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방송 이후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누적 조회수 80만회를 넘어섰다. 온라인에서는 “K직장인 랩 수준”, “무대를 장악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이번 컴온블프를 할인 행사와 콘텐츠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했다. 7월 3일부터 12일까지 매일 다섯 차례 특가 상품을 선보이는 ‘다이나믹딜’과 함께 다이나믹 듀오 협업 캠페인송, 모바일 라이브 콘서트, 숏폼 콘텐츠 등을 연계했다.

행사 첫날 열린 다이나믹 듀오 모바일 라이브 콘서트는 페이지뷰(PV) 30만건을 기록했으며, 방송 시작 5분 만에 10만 PV를 넘어섰다.

실시간 채팅 참여는 전주 같은 시간대 방송보다 약 7배 증가했다. 또한 7월 3일부터 7일까지 CJ온스타일 모바일 앱 설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4%,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46%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현대홈쇼핑

오늘 ‘리바트 집테리어’
상담 예약 라이브 방송

오후 6시 30분에 진행

현대홈쇼핑은 13일 오후 6시 30분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대리바트의 토틸 인테리어 브랜드 ‘리바트 집테리어’ 리모델링 상담 예약 방송을 진행한다.

리바트 집테리어는 현대리바트가 2022년 선보인 종합 인테리어 브랜드다. 주방과 욕실, 창호, 바닥재, 벽지 등 인테리어 전반에 걸쳐 상담부터 구매, 시공,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3년 품질보증 제도를 도입해 시공 제품에 대해 3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현대홈쇼핑은 방송 중 상담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상담 신청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리바트 소파를 증정하며, 방송 이후 실측 상담을 진행한 고객에게는 H포인트를 제공한다. 계약 고객에게는 계약 금액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방송을 통해 첫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는 현대백화점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최근 전체 리모델링뿐 아니라 주방이나 욕실 등 특정 공간만 개선하는 부분 시공 수요가 늘면서 홈쇼핑 업계도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방송 역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리모델링 상담 예약에 초점을 맞췄다.

/김서현 기자

HLB, 리보세라닙 또 불발... 담관암 신약으로 반전 노린다

리보세라닙 美 진출 세 번째 무산
파트너사 中 항서제약 제조소 문제
양사 소통 부재·파트너십 우려 커져

HLB그룹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진출이 다시 좌절됐다. 2024년 9월과 2025년 3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이번 실패 원인은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제조소 문제인데다, 양사 간의 소통 부재까지 드러나면서 공고했던 글로벌 파트너십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HLB그룹은 '리보세라닙' 재신청 절차를 밟는 동시에 그룹 내 단독 파이프라인 담관암 신약과 차세대 CAR-T 치료제를 앞세워 반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그룹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HLB의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신약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했다.

이번 CRL을 통해 미국 FDA가 제시한 거절 사유는 임상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따능AI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아닌, 올해 4월 진행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실사 지적사항이다. FDA는 해당 제조시설의 문제가 해결되고 cGMP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리보세라닙 신약허가를 유예한다고 알렸다. 또 향후 사전승인실사(PAI)를 재차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HLB그룹과 항서제약의 '깜깜이 소통'도 도마에 올랐다. 항서제약은 이미 지난 4월 FDA 실사에서 지적을 받

았으나, 이 사실을 HLB그룹에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 리보세라닙 신약허가를 위한 사전승인실사(PAI)가 아닌 일반 실사로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는 일반 실사 지적사항 역시 리보세라닙 거절로 이어진 셈이다. HLB그룹은 현재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으며 항서제약으로부터 보완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재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간암 신약 성공이 지연된 가운

데, HLB그룹은 계열사 단독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항암제 개발 전략을 재편하는 모습이다.

첫 주자는 오는 9월 27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담관암 2차 치료제 후보물질 '리라푸그라티닙'이다. 올해 1월 미국 FDA에 리라푸그라티닙 신약허가를 신청했고 두 달 만인 3월부터 본심사 착수를 통보받았다.

특히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심사보다 4개월 단축된 일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23년에는 미국 FDA에서 혁신신약으로 지정되는 등 약물 가치를 지속 입증해 왔다.

HLB그룹은 향후에는 리라푸그라티닙 글로벌 임상 2상(ReFocus)을 통해 위암, 췌장암, 두경부암 등 'FGFR2 유래 암종 불문 항암제'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진양곤 HLB그룹 이사회 의장이 직접 이끄는 HLB이노베이션과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차세대 영역에서 임상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대표 파이프라인은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Syn

KIR-110'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임상 1상 중간 결과에서 유의미한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했다. 하반기중 혈액암 치료제 후보물질 'SynKIR-310'의 임상 1상 중간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HLB그룹은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상업화를 시작으로 한 대형 로드맵은 지속 밝혀 왔다.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 ▲담관암 2차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 ▲선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단독요법 ▲암종 불문 항암제 등을 순차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첫 순서인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서 시간이 지연된 상황이다.

HLB그룹 측은 "임상 유효성, 안전성 데이터 등 리보세라닙에 관한 지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서제약에 관한 구체적인 지적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대응을 바탕으로 리보세라닙 신약허가 재신청 일정을 가능한 조속히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물살 가르고 123층 오르다... 도심 속 질주

Q 르포

2026 롯데 아쿠아슬론

1.5km 수영 후 2917계단 오르는 방식
약 1000명의 철인3종협회 선수 참가
송파구와 2021년부터 수질개선 사업
참가자들 "생각보다 물 깨끗" 입모아

아침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호수 주위로 형형색색의 수영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몸을 풀고 있다. 호수 너머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타워가 보인다. 이들이 마주할 결승선은 호수 건너가 아닌 2917개 계단의 끝, 123층이다.

12일 열린 '2026 롯데 아쿠아슬론'은 철인 3종 경기에서 사이클을 제외한 아쿠아슬론에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SKY RUN)'을 결합한 도심형 스포츠 대회다. 석촌호수 동호 두비퀴(1.5km)를 헤엄친 뒤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는 독특한 방식으로,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역대 가장 많은 약 1000명의 철인 3종협회 등록 선수들이 참가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참가자들이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힘차게 물살을 가를 때마다 수면 위로 물보라가 일었다. 선두 경쟁은 시작부터 치열했다. 한 곳에 인원이 몰리며 서로 양기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내 각자의 페이스를 찾아



12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2026 롯데아쿠아슬론'에서 참가자들이 석촌호수를 헤엄치고 있다. /롯데물산

레이스를 이어갔다. 반환점을 돈 참가자들은 지친 기색에도 쉼 없이 팔을 저었다.

경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생각보다 물이 깨끗했다"며 입을 모았다. 참가자 A씨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호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수질이 좋았다"며 "덕분에 레이스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롯데와 송파구가 지난 2021년부터 석촌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이어온 결과, 현재는 최대 2.4m 아래까지 보일 정도의 투명함을 확보했다. 현장에서는 수질 개선 시연도 진행됐다.

호수를 빠져나온 참가자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롯데월드타워로 향했다.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건물 안으로 달려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젖은 몸으로 3000개 가까운 계단을 올랐다. 계단실은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고 곳곳에서는 "조금만 더!", "파이팅!"을 외치는 응원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낯선 이들과도 격려하며 마지막 계단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파니시 지점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완주를 축하했다. 정상에서는 한강과 서울 도심이 한눈에 펼쳐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한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김수정 수습기자 krystal@

셀트리온,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 입지 확대

움리클로·베그젤마 앞세워 공략

셀트리온이 올해 하반기 유럽 전역에서 '움리클로' 등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성장세를 본격화해 추가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셀트리온은 올해 1분기 기준 유럽 시장에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움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맙)'가 올해 1분기 기준 약 1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유럽에서 퍼스트 무버 바이오시밀러로 출시되고

4개월 만의 가파른 성장이라는 분석이다.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도 시장 영향력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베그젤마는 유럽에서 약 2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년 9개월 연속 베바시주맙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강릉고려병원에 '메모 큐' 공급

실시간 생체신호 감독 체계 구축

유한양행과 휴이노가 지역 거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에 속도를 낸다. 유한양행과 휴이노는 강릉에 위치한 강릉고려병원에 인공지능(AI) 원격 시스템 '메모 큐'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강릉고려병원 응급실은 물론 일반 병동 등 연속적인 환자 상태 관찰이 필요한 진료 환경에서 실시간 생체신호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메모 큐'는 입원 환자의 심전도(ECG) 등 생체신호를 지속 측정해 이상 징후를 조기 감지하는 의료기기다. 시간, 장소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최대 300명 환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통신망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설계된 '메모 패치 M'은 최대 8일간 연속 측정이 가능한 초경량 부착형 심전제다. 이식형 제세동기, 페이스메



'메모 큐' /휴이노

이커 등을 착용한 환자에서도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강릉고려병원은 종합병원으로 24시간 응급실을 비롯해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주요 진료과를 갖췄다. 유한양행과 휴이노는 메모 큐 공급을 다양한 진료과로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길영준 휴이노 대표는 "메모 큐가 병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스마트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360도 분사 무좀치료제 출시

바르기 어려운 부위 간편하게 치료

동아제약이 무좀치료제 브랜드 '터비뉴' 제품군을 확대한다. 동아제약은 뿌리는 무좀치료제 '터비뉴 더블액션 에어로솔(사진)'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터비뉴 더블액션 에어로솔은 일반의약품으로 무좀 원인균 치료, 가려움 증상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테르비나핀, 디펜히드라민, 에녹솔론, 리도카인 등을 4중으로 복합 처방했다.

이와 함께 스프레이 형태로 설계하고 360도 분사가 가능한 용기를 적용했다. 바르기 어려운 부위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연고 제형과 차별화한 것이다. 동아제약은 앞서 겔 제형의 '터비뉴



겔'과 '터비뉴 더블액션 겔', 액상 제형을 갖춘 '터비뉴 윈스 외용액' 등을 지속 선보여 왔다.

동아제약관계자는 "무좀은 피부 부상상균 같은 진균에 감염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빠르게 증식하는 특성이 있다"며 "초기 가려움 증상이 나타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 무좀으로 악화될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번 신제품이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현대차그룹, 조수미 손잡고 글로벌 문화예술 후원 확대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 공식 후원사
저명 오페라 관계자들, 심사위원 참여
문화예술 저변 넓히고 문화 교류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소프라노 조수미가
창설한 국제 성악 콩쿠르를 후원하며 신
진 아티스트 발굴에 힘을 보탤다.

현대차그룹은 ‘제2회 조수미 국제 성
악 콩쿠르’가 지난 6일부터 11일(현지시
간)까지 프랑스 중부 루아르 지방의 고성
‘샤토 드 라 페르테 앙보’에서 개최됐다고
12일 밝혔다.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후학 양
성을 위해 창설된 대회로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심사위원으로는 조수미를 비롯해 조나



‘제2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가 개최된 프랑스 루아르 ‘샤토 드 라 페르테 앙보’에 전시된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과 소프라노 조수미의 모습 /현대차그룹

단 프렌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전 예술
고문, 파울로 가바제니 라스칼라 극장 캐

스팅 매니저 등 세계 클래식 음악계를 대
표하는 저명 인사들이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대회 현장에 특
별 전시 공간을 마련해 제네시스 GV70·
G80 전동화 모델을 선보이고, 의전 차량
으로 G90을 운영하며 대회 운영을 지원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불수교 140
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프랑스 현지
에서 개최된 이번 콩쿠르를 계속해서 후원
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진
정성 있는 문화예술 후원을 이어가며 문
화예술 저변 확대와 글로벌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글로벌 고객과의 소통을 더
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우리는행, 강북경찰서와 보이스피싱 예방

우리는행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강북경찰서와 업무협약(MO
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
해 초 중부경찰서와 구축한 공조 체계의 후속
조치다. 전재홍 우리는행 금융사기예방총괄수
석(원측 첫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
고 있다.

/우리는행



BGF리테일, 쪽방촌 구호물품 전달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BGF리테일이
서울역 인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지원에 나섰다. BGF리테일은 서울역쪽
방상담소에 음료와 과자 등 긴급 구호물품
3000여 개(약 400명분)를 전달했다고 12일 밝
혔다.

/BGF리테일



농협, 'K-라이스페스타' 참가작 공모

농협중앙회가 ‘2026 우리쌀·우리술 K-라이
스페스타’ 출품작 참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
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우수한 쌀
가공식품과 우리술을 발굴·소개하고, 대중적
소비 기반 확대 및 유통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8일 경기 고양 킨텍
스에서 열린 ‘2025 우리쌀 우리술 K-라이스
페스타’ /뉴시스



소진공, 시흥에 로컬창업타운 개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 경기 시흥에 로컬창
업타운을 열고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기업 추
가 육성에 나선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오른
쪽)이 지난 10일 경기 시흥 로컬창업타운 개소
식에서 임창주 시흥산업진흥원장과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소진공

현대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차량 지원

싼타페 50대 의전 제공

현대자동차가 주요국 정상과 각료, 기
업 CEO 등이 모이는 국제행사에 차량
지원을 이어가며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10일 필리핀 국제 컨벤
션 센터(PICC)에서 필리핀 아세안(ASE
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정상회의의 조
직위원회와 ‘2026 아세안 정상회의의 차량
지원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
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오는 11월
10~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49
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필리핀 현지 법인
을 통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 50대
를 대표단 경호 차량으로 제공한다.

싼타페는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넉넉

한 실내·적재 공간, 편안한 승하차 편의
성, 첨단 안전 사양 등을 갖춰 의전 및 경
호 차량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그동안 주요 국제행사에 의
전 및 운영 차량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
롯해 2025 주요 20개국(G20) 요하네스버
그 정상회의,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
의 등에도 차량을 공급하며 글로벌 행사
운영 경험을 쌓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세안 공동체의 미
래를 함께 열어가는 정상회의에 차량 지
원으로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2026 아세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
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양성운 기자 ysw@

GC녹십자, 한국백신과 백신 공급망 협력

사전충전형 주사제 백신

GC녹십자가 백신 공급망 안정성을 높
인다. GC녹십자는 지난 9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한국백신 본사에서 한국백신과
‘사전충전형 주사제(PFS) 백신’ 위탁생
산(CMO)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C녹십자는 자사대
표 제품인 독감백신 ‘지씨플루’의 완제의
약품 생산 구조를 다변화한다. 국내외 시
장으로 공급망을 분산해 시장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예기치 못한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나 팬
데믹 상황 발생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백신 완제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점
을 둔다.

또 향후 3년 내 품목허가를 목표로 개
발하고 있는 고령층 대상 ‘고면역원성(고
함량 항원) 독감백신’의 안정적인 제조
및 공급 기반을 미리 구축함으로써 경쟁
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사
전적격성평가 및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
기구(PIC/S)의 수준을 충족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생
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계절성 인플루
엔자 백신, 경피용 BCG백신 등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을 대상으로 CMO 서비스
를 제공해 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남-LH, 공공임대주택 난방비 부담 줄인다

기계실 고온부 보존재 지원사업 추진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와 한국토지주
택공사(LH)가 최근 지속되는 에너지 가
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한남은 LH와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입주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
혔다. 정부의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EERS)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은 한남이 열을 공급하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난방설비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 골자
다.

협약에 따라 한남은 자체 지원사업인
‘부담↓ 따뜻함↑ 한남효율+’와 연계해
사업비와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LH는 효
율 개선이 필요한 단지 발굴과 행정지원
을 맡는다. 양사는 올해 기계실 고온부 보
존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자동제
어 절약모드 설치, 차압유량조절밸브 유
지보수 등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설 개선에만 그치
지 않고, 절감된 에너지가 실제 난방비 인
하로 이어지도록 성과를 측정하고 데이
터를 공동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
를 검증하고, 향후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국마사회, 몽골과 말산업 협력 강화

‘세계 말의 날 재단’과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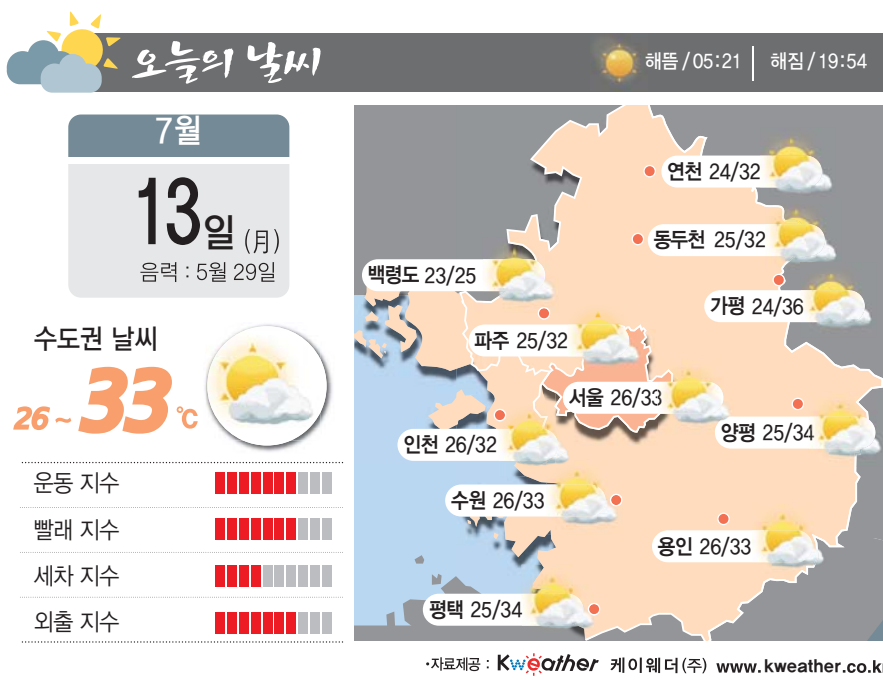
한국마사회가 몽골의 ‘세계 말의 날 재
단’과 ‘말문화 및 말산업 협력’에 관한 양
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기관 간 협
약은 지난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
르에서 개최된 ‘2026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성사됐다.

마사회는 국내 말산업을 대표하는 기
관 자격으로 사절단에 선정돼 몽골을 방
문했다. 우희종 마사회 회장과 니랑바드

라흐 바트후 세계 말의 날 재단 설립자가
직접 협약식에 참석했다.

양측은 ▲말문화·인력수의 분야 등 말
산업 관련 교류 활동 장려 ▲양국 간 말산
업과 경마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
축 지원 ▲양 기관이 보유한 지식의 공유
와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았다.
세계 말의 날 재단은 지난해 UN이 지
정한 국제기념일 ‘세계 말의 날’을 이끄는
몽골의 대표 기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인사 ◆중앙대 △교학처 생활관(다
빈치) 처장 이동연 △구매처 구매계약팀 부
처장 권영재 △총무처(다빈치) 시설관리팀
부처장 조경훈 △총무처 총무팀 부장 임형
택 △총무처 총무팀 부장 정옥균 △노동조
합 부장 박재홍 △총장실 비서팀 처장 육송
미 △사회과학대학·사회복지대학원·심리
서비스대학원 교학지원팀 처장 김은경 △
입학처 입학관리팀 처장 이재훈 △입학처
입학정책팀 처장 장준호 △구매처 구매계
약팀 처장 안동완 △생활관 처장 임주환
◆하나은행 (승진) ◇지점장 △영도 전병
탁 (전보) ◇부장 △IT제휴개발부 박도영
△IT기획부 정재안

부음 ▲김찬수(향년 95세)씨 별
세, 김시오(대구의료원장)씨 부친상 = 11
일, 대구의료원 국하원 장례식장 201호
실,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 055-650-
3986
▲손석백(향년 87세)씨 별세, 강오순(한국
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씨 장인상
= 11일 오전 9시, 창원경상대병원 장례식
장 VIP 2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30분, 장
지 창원시립상복공원, 055-214-1900
▲박성경씨 별세, 장재영(수원하이텍고등
학교 교육행정실장)씨 배우자상 = 11일 오
전 11시,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 204호, 발
인 13일 오전 8시, 031-218-3000

중기부 아이디어 컨설팅데이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
젝트’진출자와 아이디어 보호를 희망하
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데
이’를 개최한다.

스타트업 윈스톱 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후 7개월 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애로를 약 1만 5000건 해
소하며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첫 번째 지원 창구로
서 자리 잡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버거에 파인애플을

WHY?

단짠 조합으로 맛있게

HAWAII!!



By chef 벵딱한 천재

하와이안 모zzarella버거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I가 투자 분석부터 제안까지… 자산관리 패러다임 재편”

기조강연

송 홍 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I, 투자·자산관리 바꾸는 ‘투자혁명’
하드웨어 넘어 서비스까지 투자 영역 확장
자산관리 분야 ‘에이전틱 AI’가 주도할 것
판단·책임 사람의 몫… 감시체계 발전해야

“100세 시대 자산관리의 패러다임도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기조강연에서 ‘AI와 자본시장: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AI를 기술혁명이나 생생혁명이 그치지 않고 생활과 투자 방식까지 바꾸는 ‘투자혁명’으로 규정하며 “지금 AI가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투자와 자산관리 전반을 바꾸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AI가 반도체나 인터넷처럼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장기간 이어질 구조적 투자 테마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기기관과 전기, 자동차, PC·반도체, 인터넷이 각각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과 자본 시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역시 202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성형 AI 이후에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나

아가 퍼지컬 AI까지 발전하면서 경제와 산업 전반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P500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변화를 소개하며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기술기업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주도해 왔다”며 “AI 기업 역시 앞으로 상당 기간 글로벌 증시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AI 관련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기술혁명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그는 현재 AI 투자가 반도체와 그래픽처리장치(GPU), 고대역폭메모리(HBM), 데이터센터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서비스 영역으로 가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AI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경기순환 테마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범용기술”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조차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세culares(세cular) 투자 테마”라고 강조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에이전틱 AI’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는 AI가 매일 뉴스를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제안하는 것은 물

론 투자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문 직 전까지 준비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중심의 자산관리와 AI를 활용한 자기주도(DIY) 자산관리가 함께 성장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는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도 높일 것으로 평가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공시와 뉴스, 경제지표 뿐 아니라 이미지와 음성 등 다양한 비정형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 처리 속도와 분석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실제로 챗GPT 활용 이후 호가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가격발견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AI가 분석과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은 점점 커지겠지만 투자와 자산관리는 결국 책임이 수반되는 의사결정”이라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에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감시와 감독 체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AI 자산관리 확산… 투자자 보호 균형 이뤄야”

측 사

황 선 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자산운용방식 진화
AI 확대에 투자자 보호·자산 쏠림 대비해야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인공지능(AI) 혁명과 초고령사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자산관리의 패러다임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측사를 통해 “좋은 자산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이제는 노후 준비의 핵심 과제가 됐다”며 “AI는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환경에서는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방식이 필요하며,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가 그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제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계약자가 21만명을 넘어섰고 운용 자산도 6800억원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과거 고액자산가 중심이었던 자산관리 서비스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AI가 유사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비슷한 투자 판단을 내릴 경우 특정 자산으로 시장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투자자 보호를 넘어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에게 AI의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사람이 의사 결정을 점검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정윤 기자

“노후파산 현실화…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

개회사

이 장 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초고령사회, 노후 위해선 건강 뒷받침 돼야
지출 감당 못하는 ‘노후 파산’ 현실화 우려

“머리는 인공지능(AI)에게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쌓듯 차곡차곡 건강을 쌓아가는 게 AI시대, 성공적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의 제1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먼저 언론사 선배 가운데 ‘70세 청년’을 자처하는 한 인물을 소개했다. 그는 은퇴 후 티베트와 히말라야, 남미 안데스 파타고니아 등을 누비며 트레킹을 이어갔고, 그 경험을 책과 사진전으로 남겼다.

이 대표는 “그는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몸을 만들다 보면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한다”며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고, ‘건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NHK 다큐멘터리 ‘노후파산’에 출연한 고령자의 “65세 이후

의 삶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노후 파산’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은퇴 후의 연금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가족보살핌 속에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지출을 감당 못해 파산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 하지 못하는 평생 현역사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지원되고 있는 시니어 창업과 기술 승계,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노후 지원 프로그램들의 전제 역시 건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AI 시대 건강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그 답은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AI가 바꾼 자산시장… 투자 화두 총집합

VIP 티타임 이모저모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9일 열린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학계 인사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포럼에서 거의 자리를 뜨지 않고 발표 내용을 경청했다. 일반 참석자 중에서는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된 자료를 일일이 휴대폰 카메라에 담는 열의도 보였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이 자산시장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번 포럼이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 시작 전 30분간 열린 VIP 티타임에서는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건섭 메트로경제 언론윤리위원 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영익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김진국 넥스트레이

드 부사장, 김승연 넥스트증권 대표, 신동승 한국펀드평가 대표, 신용인 NH아문다자산운용 부사장, 김택동레이크투자자문 대표,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등 20여명이 모였다.

○…레버리지 투자 규제를 둘러싼 대화도 오갔다.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가 “요즘 레버리지 때문에 난리더라”고 운을 떼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돈 많이 벌었으니까 교육에 투자하라고 했다”며 “요즘 레버리지 상품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상품이 극심한 주가 변동성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레버리지 상품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관심이 VIP 티타임에서도 자연스럽게 화제로 이어진 모습이다.

○…국내 주식시장을 달구고 있는 반도체주도 자연스럽게 대화 소재가 됐다.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한 투자자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에 참석한 주요 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지금 팔아야 할지, 더 사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을 꺼내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재훈 단국대 조교수도 “최근에는 지수가 하루에 3~4%씩 움직일 정도로 변동성이 커져 예전과는 다른 시장”이라며 반도체주를 둘러싼 투자 심리를 언급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한 학교에서는 학교 법인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을 처분하려고 이사회를 열어야 했는데,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밀리는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평

가금액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주목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정재훈 단국대 조교수는 “청년층에서는 기성세대는 집을 다 사놓고 왜 우리는 못 사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젊은 세대의 시각을 짚었다. 김건섭 메트로경제 언론윤리위원(전 금감원 부원장)은 “젊은 친구들에게는 (부동산이)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공감했다.

/신하은 기자



“정보 유출 막자”
유통업계
보안투자 총력
L1



Life

HLB
리보세라립
美진출 또 좌설
L2



“AI, 성장 판도 바뀌… 반도체가 한국경제 견인” “어렵고 복잡한 연금관리, AI로 ‘초개인화’”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강연

황 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AI·데이터센터 등 국내 반도체산업 성장 지속
코스피 변동성 확대… 장기 상단은 높아질 것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미국과 한국 경제의 성장 구조를 바꾸고 있다. 한국 역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2026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는 고소득층 소비와 AI 투자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으며, 한국은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경기 회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 센터장은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도 소비 기반은 예상보다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미국 경제 성장에서 AI 투자의 기여도가 2000년 닷컴버블 당시 정보기술(IT) 투자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AI가 새로운 성장 사이클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AI가 곧바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AI를 구조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으로 평가한 점을 소개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이 수요 증가를 앞지르면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AI에 대한 기대가 투자와 소비를 먼저 자극



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황 센터장은 연준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서비스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HBM과 범용 D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 확대가 설비투자로 이어지면서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라며 “예상보다 강한 수출 모멘텀과 무역수지 흑자를 감안하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3.3% 수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의 예상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급등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가율이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코스피의 장기 상단은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황 센터장은 “AI는 특정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변수”라며 “미국의 AI 투자 확대와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맞물리는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 장기적인 성장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강연

조명훈 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서장

진단부터 자산배분까지… AI 연금관리 진화
리스크 관리·장기투자 등 기본원칙은 불변

“인공지능(AI)이 연금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AI가 가장 크게 가져올 변화는 어렵고 복잡한 연금관리를 고객의 상황에 맞춘 초개인화 관리로 바꾸는 것이다.”

조명훈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 연금컨설팅부서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연금 자산관리’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서장은 연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10~30년에 걸쳐 운용되는 장기자산이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금은 상품이 아니라 제도이기 때문이다”라며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디폴트옵션 등 가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많아 관리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매수·매도 타이밍을 판단하기 더욱 어렵다고 짚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AI를 활용한 연금관리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AI 연금 은보딩 3대 핵심 솔루션’을 소개했다. ▲초개인화 진단 및 은보딩 ▲스마트 자산배분 및 운용 ▲정기 맞춤형 큐레이션 등 AI가 연금관리에서 하게 될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연금 주치의’ 역할을 하는 정기 맞춤형 큐레



이션을 강조했다. 조 부서장은 “처음에는 연금에 관심을 갖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AI가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밸런싱 알림과 위험 경고를 제공해 꾸준한 관리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여러 연금상품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제안하고 원클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부서장은 “AI에 의한 연금관리 생태계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고객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있다”라며 “초개인화된 AI 연금관리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금사업자의 자산관리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I가 발전하더라도 연금관리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저비용 인덱스 중심의 장기투자 ▲연금사업자의 수탁자 책임을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AI 기반 연금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 고객의 연금관리 편의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인 자산 성과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 부서장은 “AI는 시장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지만 고객의 최종 의사결정과 연금사업자의 윤리적 수탁자 책임까지 기술에 위임할 수는 없다”며 “AI는 도구이고 연금은 제도이며 관리는 습관이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할 때 연금은 방치된 자산이 아니라 100세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부동산 금리인상 변수…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 “온체인 금융 현실로… 美시장 인프라 이동 시작”

강연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

부동산 시장 핵심변수는 금리, 인플레이션
전세 감소·월세 급등에 임차시장 불안 심화

“2023년부터 줄곧 ‘부동산을 사라’고 했지만 지금은 쉽게 그렇게 말하기 조심스럽다.”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AI 시대의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 진단부터 미래 투자 전략까지’를 주제로 강연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다. 특히 집값보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급등이 더 큰 문제라며 공급 확대 없이는 임차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조교수는 “금리를 얼마만큼 급격하게 올릴지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75 bp(1bp=0.01%포인트) 정도는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규제를 피해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전세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정책 속에서 전세를 시장에 내놓을 사람이 없어졌다”며 “민간이 임차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은 20%에 불과하다. 80%의 물량



이 없어지면서 임차시장에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높은 월세를 감당하거나 매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는 계속 사라지고 월세는 계속 오를 것”이라며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는 전세가격이 아니라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 서울 주요 입지의 월세는 지금보다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봤다. 정 조교수는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처럼 아파트도 쇼티지”라며 “아파트 공급 부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고점을 넘어섰고, 성동구와 송파구는 전고점 대비 30% 이상 높은 수준까지 올라 다른 지역보다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해결 방법은 결국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삶의 질의 수준이 높아졌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공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 조교수는 “공급 앞에 장사가 없다”며 “좋은 아파트들이 계속 나오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그렇게 비쌀 이유는 없고, 아파트 공급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는 “민간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금융 측면에서 지원해주야 공급이 늘어난다”며 “손발을 묶어놓고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 민간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강연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미국, 블록체인 전환 추진… 토론회 개발 활발
한국, 제도 논의 정체… 글로벌 대응 시급해

“앞으로는 어떤 자산을 살지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판’이 바뀐다. 미국은 이미 금융시장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2026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온체인 금융이 온다-이미 시작된 미국 금융시장 인프라의 이전’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나 특정 코인에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며 “온체인 금융은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반감기라는 비트코인 내부 이벤트가 가격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기관투자자 자금, 금리와 달러, 국가 정책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가격을 결정한다”며 “가격을 움직이는 힘이 코인 안에서 코인 밖으로 이동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 키워드로 ‘온체인 금융(On-chain Finance)’을 제시했다. 온체인 금융은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을 토큰 형태로 저장하고 거래하는 금융 시스템이다. 그는 “주식과 채권, 국채, 금, 달러 같은 현실의 자산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발행·거래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2017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기술이 미성숙했고 미국 규제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았다”며 “지금은 기술과 제도, 시장 규모가 모두 갖춰져 본격적인 온체인 금융 시대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근 미국의 움직임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시장 온체인화’로 해석했다. 거래와 청산, 결제, 보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전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과 토큰화 증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DTCC)도 토큰화 증권 파일럿을 시작한다”며 “비전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운영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바이낸스와 크라켄 등 가상자산 거래소는 토큰화 주식을 출시하고, 코인베이스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반대로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는 24시간 거래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크립토는 주식으로 들어오고 전통 금융은 가상자산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양쪽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금융시장을 온체인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제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에 보다 빠르게 대응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